

2022 이감 인사 이트



2023학년도
성공적인 수능
준비를 위한 이감의
수능분석자료집



주요 데이터 분석

등급컷 / 오답률 TOP 10

[등급컷 분석]

등급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22학년도 대수능 예상 등급컷			2022학년도 대수능 추정 등급컷
	평가원	평가원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진학사	
1	90/85	100/96	83/82	84/82	83/82	86/84
2	83/78	96/93	76/75	77/74	75/75	79/78
3	74/70	90/87	69/69	67/64	68/67	72/71
4	64/60	83/80	62/61	60/54	59/57	65/64
5	52/48	72/69	53/52	50/43	46/47	56/54
6	38/35	55/52	42/41	39/31	35/34	44/43
7	25/22	30/28	33/32	29/21	24/25	33/32
8	20/17	20/17	26/25	21/12	17/15	23/22

※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언어와 매체' 순서로 점수를 기재함.

- 01 예상 등급컷을 종합했을 때 9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확연히 어렵고, 심지어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 확연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일 년 동안의 성과를 80분 안에 선보여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유독 버거운 시험을 치러야 했던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 02 특기할 점은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 비하여 선택과목 간의 점수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선택과목 간의 객관적인 난도 격차를 좁히기 위한 평가원의 시도로 풀이되며, 1~34번까지의 공통과목도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오답률 TOP 10 - 화법과 작문]

(홀수형 기준/%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5	독서	2	77%	②	8%	23%	42%	16%	11%
2위	40	화작	3	72%	③	2%	6%	28%	61%	3%
3위	8	독서	3	70%	②	10%	30%	13%	34%	13%
4위	11	독서	2	70%	⑤	15%	26%	18%	11%	30%
5위	13	독서	3	70%	④	11%	25%	19%	30%	15%
6위	16	독서	3	68%	④	9%	17%	25%	32%	17%
7위	23	문학	3	59%	④	2%	5%	13%	41%	39%
8위	4	독서	2	58%	①	41%	14%	29%	11%	5%
9위	12	독서	2	57%	⑤	5%	16%	16%	20%	43%
10위	7	독서	2	52%	③	11%	14%	48%	18%	9%

독서

8

문학

1

화작

1

-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8문항, 문학 1문항, 화작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포 자체는 이전과 다르지 않지만, 오답률 분포는 독보적이다. 특히 화법과 작문 문항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된 것은 이번 시험이 처음이다.
-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 40번 문항은 72%의 오답률을 보였는데, 정답 선지를 선택한 학생들[→ 28%]보다 33%나 많은 학생들이 ④번 선지를 대신 선택하였다. 정답 선지를 판단하기도 까다로운 편이었으나, 짧은 시간 안에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④번 선지가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선택과목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는데, 이 자체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에서도 난도를 높이면 높였지, 낮추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선택과목에서도 이런 식으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 1~2문항 정도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다.
-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3문항[→ 4번, 7번, 8번], 사회 지문에서 3문항[→ 11번, 12번, 13번], 기술 지문에서 2문항[→ 15번,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독서론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각 지문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 독서편]에서 설명하겠다.
- 문학 영역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1문항[→ 23번]이 포함되었다. 오답률 TOP 10에는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나 22번의 오답률 역시 49%로 상당히 높았다. 갈래 복합 영역[→ 18~23번]은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시간을 요하는데, 비연계 작품과 더불어 선지들이 요구하는 판단들도 상당히 불친절하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지점이다. 물론 갈래 복합 6문항만 떼어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독서 영역에서 이미 충분히 시달린 학생들에게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나 싶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오답률 TOP 10 - 언어와 매체]

(홀수형 기준 /%는 반올림한 값임)

순위	문항 번호	영역	배점	오답률	정답	선지별 선택 비율				
						①	②	③	④	⑤
1위	13	독서	3	68%	④	12%	25%	17%	32%	14%
2위	15	독서	2	68%	②	8%	32%	38%	13%	9%
3위	8	독서	3	65%	②	14%	35%	8%	32%	11%
4위	16	독서	3	64%	④	9%	15%	25%	35%	16%
5위	11	독서	2	62%	⑤	16%	25%	15%	6%	38%
6위	38	언매	2	55%	①	45%	3%	3%	3%	46%
7위	41	언매	2	54%	③	3%	5%	46%	3%	43%
8위	23	문학	3	53%	④	1%	4%	7%	47%	41%
9위	12	독서	2	43%	⑤	6%	12%	10%	15%	57%
10위	4	독서	2	42%	①	58%	9%	25%	6%	2%

독서	7	문학	1	언매	2
----	---	----	---	----	---

- 01** 오답률 TOP 10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독서 7문항, 문학 1문항, 언매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포 자체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 화법과 작문에 비해 오답률이 다소 낮은 것은 표준점수 이득을 목적으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전부 언어와 매체에 몰렸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 02** 언어와 매체 영역에서는 2문항〔→ 38번, 41번〕이 포함되었다. 38번은 언어 영역, 41번은 매체 영역에 해당하지만 후자 역시 실질적으로는 언어 문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두 문항 모두 새로운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았으나〔→ 서술어의 자릿수, 격 조사와 문장 성분의 역할은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다룬 개념이다.〕, 그것을 복잡 함정의 형태로 물어봄으로써 의도적으로 난도를 높인 문항에 해당한다. 시간이 촉박하여 마음이 급한 학생들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 03** 독서 영역에서는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에서 2문항〔→ 4번, 8번〕, 사회 지문에서 3문항〔→ 11번, 12번, 13번〕, 기술 지문에서 2문항〔→ 15번, 16번〕이 오답률 TOP 10에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독서론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각 지문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이나, 참조할 점에 대해서는 후술되는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 독서편]에서 설명하겠다.
- 04** 문학 영역에서는 오답률 TOP 10에 1문항〔→ 23번〕이 포함되었다. 오답률 TOP 10에는 아슬아슬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나 22번의 오답률 역시 49%로 상당히 높았다. 갈래 복합 영역〔→ 18~23번〕은 읽어야 하는 텍스트의 분량이 상당히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시간을 요하는데, 비연계 작품과 더불어 선지들이 요구하는 판단들도 상당히 불친절하였기 때문에 예상되는 지점이다. 물론 갈래 복합 6문항만 떼어 놓고 보면 객관적으로 크게 어렵지는 않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나, 독서 영역에서 이미 충분히 시달린 학생들에게는 지나친 요구가 아니었나 싶다.

II

출제 경향과 영역별 특징 분석

1. 독서

01. 출제 경향

● 총평

지문 내용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불친절한 시험이었다. 지문의 정보량은 확연히 줄어들었으나, 수험생이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까지 생략하고 압축하는 바람에 수험생 입장에서 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평가원의 출제에서 그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올해 평가원 시험들을 참조하여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의 평가원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지문 평가

- 6월 모의평가에 처음 등장하였던 독서론[→ 1~3번]의 출제가 예상대로 정착되었다. 6월 모의평가에는 1문항 정도 변별력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9월 모의평가와 이번 대수능에서는 전부 쉽게 출제되었다. 학생들의 독해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려는 독서론의 경향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2021학년도 대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인문 영역의 두 지문을 합친 주제통합형 지문이 출제되었다. (가)는 수능완성 216쪽의 연계로 글의 구성의 측면에서는 특별한 점이 없다. 그러나 (나)에서는 논설문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가)에서 제시된 헤겔의 미학에 대해 논박하려는 새로운 유형의 글이 등장하였다. 평가원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는 글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겠다.
- 의도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학생들의 독해에 부담이 되도록 문장이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읽으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상을 받은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이감국어교육연구소에서는 정보의 밀도가 높은 글을 여러 차례 미리 출제해 왔지만, 이러한 글을 시험장에서 읽을 때 학생들이 느꼈을 부담은 분명 상당했을 것이다.
- 독서론 지문은 특이하다고 할 만한 요소가 없었으며, 지극히 무난하게 출제되었다. 유일하게 학생들이 편한 마음으로 읽어 낼 수 있는 지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독서의 방향, 올바른 독서 이론에 대해서 다루는 대신에 독서와 관련된 성찰이라는 비교적 폭이 넓은 주제를 다뤘다는 점은 눈여겨볼 지점이다.
- 사회 지문은 이감국어교육연구소의 예상대로 경제 지문이 출제되었으며, 수능완성 147쪽이 연계되었다. 다만 학생들이 지문에 생략된 유동성의 공급 변화, 화폐 가치의 변화, 환율의 변화를 전부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 낼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 기술 지문은 사실상 비연계 지문으로 보이나, 예상대로 영상 기술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되었다. 특이한 점은 지문의 길이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왜곡 보정’과 ‘시점 변환’을 포괄하는 전체 과정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려다 보니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이 지문에서 정보를 어떻게 읽어 내야 하는지가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 문항 평가

- 오답률 상위 10개 문항 중에 독서 문항이 7~8개이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요구하는 추론의 정도가 높았다. 즉 지문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단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선지들이 많지 않았다.
- 주제통합형 인문 지문은 5번, 8번이 부담스러웠다. 5번 문항은 (가)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8번 문항은 (가)와 (나)를 제대로 엮어서 읽어 내야만 판단이 용이했을 것이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주제통합형 지문은 부담스럽지 않게 주어질 것이라는 편견 내지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주제통합형 지문에서도 이런 식으로 난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음을 교훈으로 삼자. 그중 8번 문항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별도로 설명하겠다.
- 사회 지문은 단순 내용 일치에 불과한 10번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1번, 12번, 13번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11번은 화폐 가치의 절상과 절하를 문단3에서 정확히 읽어 내어야만 풀 수 있었고, 12번은 정답 선지는 무난하였으나 나머지 선지들을 판단하는 과정이 꽤 어려웠다. 13번은 출제 취지 자체는 매우 좋으나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추론을 요구하여서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그중 13번 문항은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다루겠다.
- 기술 지문은 15번의 오답률이 매우 높았는데, 문단3에서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에 주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고난도 문항 해설]에서 설명하겠다. 참고로 이후 설명하는 문항 오답률의 기준은 홀수형 기준이다.

02. 지문 분석

[4~9] (인문-인문) 헤겔의 변증법적 체계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주제통합형]

주목해야 할 지문 (2022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

- 1) (가)는 변증법적 체계를 통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이 인식하는 대상인 세계를 설명하고자 한 헤겔의 관점을 서술하고 있다. (나)는 (가)에서 제시된 예술의 위상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논박하려는 특정 필자의 주장을 서술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가)와 마찬가지로 ‘헤겔의 변증법적 체계’라는 동일한 철학적 체계에 근거하고 있음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 2) 연계 양상 : 수능완성 216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헤겔의 변증법’이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하지만 EBS 지문에서 다룬 내용과는 방향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연계 체감도는 매우 낮았을 것이다. 이감 모 의고사와 간쓸개에서는 대수능과 마찬가지로 ‘헤겔의 미학’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차례 다루었다.

❖ 지문 및 <보기> 설명

- 1) (가)의 ‘헤겔’과 (나)의 글쓴이 사이의 가상의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두 지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였는지를 전제로 하는 문항이다. 즉 지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 자체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 지문의 핵심 내용을 다시 살펴보자.
- 2) 먼저 (가)의 헤겔은 변증법적 체계를 정립하고, 미학 역시 동일한 체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절대적 진리[→ 인식 대상, 대상, ‘이념’]를 인식하는 주체인 절대정신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바로 예술, 종교, 철학이다.

인식 주체	인식 형식	인식 대상
예술[→ 객관성]	직관[→ 외면성]	절대적 진리
종교[→ 주관성]	표상[→ 내면성]	
철학	사유	

- 3) 변증법적 체계에 따르면 예술은 ‘직관하는 절대정신’이고 종교는 ‘표상하는 절대정신’이다. 그리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즉 헤겔은 ‘정립-반정립-종합’의 논리적 구조를 ‘예술-종교-철학’에 도입하고자 한 것이다.
- 4) 문제는 헤겔이 절대정신의 내용[→ 절대적 진리]을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가) 문단3]. 그에 따라 예술은 미성숙한,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에 불과한 것이 된다.
- 5) (나)의 글쓴이는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헤겔의 변증법적 체계에 따르면 철학에서는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되어야 한다[(나) 문단1]. 즉 ‘예술+종교=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4)에 의해 ‘예술 → 종교 → 철학’이 된다.
- 6)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적 체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을 실현하는 새로운 절대정신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주장한다.
- 7) <보기>의 헤겔은 괴테와 실러의 경우처럼 예술 작품도 충분히 성숙하면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이는 예술 작품이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에 머물지 않고 6)과 같이 ‘진정한 의미의 종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정신’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의 글쓴이의 ㉠에 들어갈 내용은 이에 대한 것이겠다.

❖ 정답 설명 : ②

- 1) 모든 선지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론[→ (가)의 헤겔의 ‘변증법적 체계’]과 실제 현실[→ (나)의 글쓴이와 <보기>의 헤겔이 동의하듯이 예술은 진정한 의미의 종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정신이 될 수 있음]의 차이를 지적해야만 정답 선지가 된다.
- 2) 헤겔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그 인식 형식이 ‘직관’이기 때문에 외면성에 대응한다. 따라서 선지의 전반부는 적절하다.
- 3) 그러나 현실에서는 예술이 ‘진정한 의미의 종합을 실현할 수 있는 절대정신’이 될 수 있다. 이는 예술이 외면성만이 아니라, 내면성까지 종합한 절대정신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선지의 후반부도 적절하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대립적 범주들의 중화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나)의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헤겔의 이론에서 예술은 정립 단계에 위치하지,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정립, 반정립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종합’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이론에서는 예술이 객관성을 본질로 한다. 그러나 선지의 후반부가 적절하지 않다.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라는 것은 예술이 ‘진정한 의미의 종합’을 이룬다는 것과 거리가 멀다. 종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이론에서는 예술이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기능한다.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기 때문에, 예술로는 그것을 온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충분히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술의 위상을 낮게 평가하는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10~13] (사회)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주목해야 할 지문 (2022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AA

- 1) ‘브레턴우즈 체제의 도입과 붕괴 과정’을 다룬 경제 지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어서 관련 지문을 이미 접하였거나,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리했을 것이다. 지문의 내용이 생략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그러한 생략은 <보기>에서 해소되거나 선지를 통해 이해 가능하도록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문은 물론 <보기>에서도 상당수의 내용이 생략되어 학생들이 읽어 내기에는 매우 힘들었을 거다. [고난도 문항 해설] 이후에 이어지는 지문 전체의 상세 분석을 참고하자.
- 2) 연계 양상 : 수능완성 147쪽에서 다룬 핵심 개념소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해당 지문에서도 핵심 개념소로 연계되었다. 연계 학습을 철저히 한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표현을 알아서는 지문 독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당 체제 안에서 경상 수지 적자가 어떻게 문제가 되고, 국제 유동성 공급에 의해 기축 통화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읽어 낼 수 있어야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감 모의고사에서 브레턴우즈 체제의 구체적 원리를 다루었음에도 학생들마다 반응이 상이한 것은 주어진 지문을 활용하는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일 테다.

고난도 문항 해설 13번

❖ <보기> 설명

- 1) 지문과 <보기>의 거리가 매우 멀다. <보기>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을 주축으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문의 외적 내용은 최대한 배제하고 실전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겠다.
- 2) <보기>의 상황은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이다. 기축 통화국인 A국의 화폐를 달러화로 놓고 이해하면 되겠다.
- 3) 세 국가 A, B, C의 합의에 의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50% 하락하고, C국 통화의 환율이 30% 하락하였다. 이는 지문에서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와 대응되는 설명이다.

❖ 정답 설명 : ④

- 1) <보기>의 합의에 의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의 환율도 하락하고,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도 하락하였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평가 절상을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 2) 다만 선지에서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에 대해서 묻고 있다. 경상 수지 개선은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평가 절하에 의해 실현된다[→ 이는 지문에서 경상 수지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지 않으려 했음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즉, 평가 절상이 이루어지면 경상 수지 흑자가 줄어들게 되니, 그 반대로 평가 절하가 이루어지면 경상 수지가 개선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3) 즉 해당 선지가 적절해지려면 B국에 대한 C국 통화가 평가 절하되어야 한다. B국 통화의 환율은 50% 하락하였고, C국 통화의 환율은 30% 하락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C국 통화의 환율이 덜 하락하였음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된 것은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의 결과이다. 선지는 선후 관계가 뒤집혔다. 또한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과잉 공급에 의한 것이지, 공급 감소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②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B국 통화의 평가 절상과 같다. 이는 지문에서 국제 유동성[→ 달러화, <보기>에서는 A국 화폐]이 과잉 공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합의의 결과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물론 하락하였으나, B국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하락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B국 통화의 경우에 비해 환율이 덜 하락하였기 때문에,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봐야 한다[→ 평가 절하].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주목 ▲ 이는 정답 선지의 주요 근거가 되기도 한다. ④번 선지에서도 B국 통화에 대해 C국 통화가 평가 절하되었는지, 절상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되도록 주어진 선지를 순서대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이다.

- 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세 국가는 합의를 거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켰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 ▲ <보기>의 상황에서는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A국의 경상 수지 악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으로 정보를 불충분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보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가 통화의 평가 절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지문의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와 같은 문제 상황임을 추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선지의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역시 수용할 수는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원리와 붕괴

극도로 불친절한 지문이다. 지문 내용에 생략이나 비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았으나 대부분은 선지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혹은 <보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메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지문에서는 그러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맥락 짚기

여기까지는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무엇인지, 그것이 브레턴우즈 체제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

맥락 짚기

이것이 바로 1)에서 언급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에 해당하는 설명이겠다.

주목

그렇다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수입이 늘어나고 수출이 줄어들면[→ 경상 수지 적자]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 달러화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

맥락 짚기

문단1에 대한 단순한 요약이다.

문단 1 트리핀 딜레마

- 1)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 2)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다.

수입 > 수출 ⇒ 경상 수지 적자
수입 < 수출 ⇒ 경상 수지 흑자

- 3)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

▶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것은 국제 유동성 공급 중단으로 이어진단다. '국제 유동성'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가자.

- 4) ……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반대로 미국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상태가 이어지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된다. 3)의 설명을 고려했을 때 결국 '국제 유동성'은 '달러화'와 동치로 이해하면 되겠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경상 수지 적자 허용 × ⇒ 달러화 공급 ×
경상 수지 적자 지속 ⇒ 달러화 과잉 공급

▶ 경상 수지 적자를 아예 허용하지 않으면 국제 유동성인 '달러화'가 공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반면 경상 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달러화'가 너무 많이 공급되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까지는 왜 신뢰도가 저하되는지, 고정 환율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되지 않았다].

문단 2 브레턴우즈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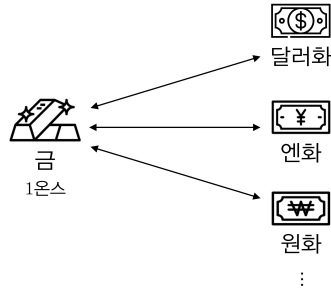
- 1)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실패함]와 **달러화의 신뢰도**[→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실패함] 간의 문제이다.

- 2)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 문단1-3)에 언급되었던 '국제 유동성'에 대한 정의다. 문단1-1)의 '기축 통화'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 3)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가령 달러화로는 금 1온스를 1달러로 얻을 수 있고, 원화로는 금 1온스를 1,000원에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면 1달러는 1,000원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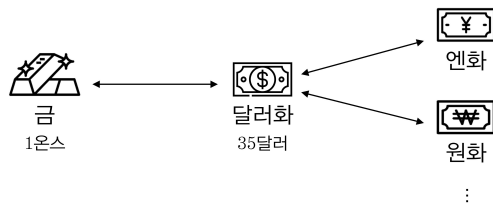


▶ 이때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각 국가의 통화 가치가 금에 고정되기 때문이다. 문단1-4에서 언급된 '고정 환율 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4)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 5)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금 1온스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국제 유동성인 달러화 35달러를 먼저 매입해야만 한다.

▶ 그리고 달러화에 각 국가 통화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다. 가령 원화의 통화 가치가 1,000원에 1달러이고, 엔화의 통화 가치가 100엔에 1달러로 고정되었다고 하자. 금 1온스를 매입하려면 원화로는 35,000원이, 엔화로는 3,500엔이 필요한 것이다.



- 6)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 사실상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 '금 본위제'에서는 모든 통화[→ 달러화 포함] 금 1온스와 고정된 비율로 교환되기 때문에, 통화들 간의 환율도 고정된다. 다만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금 1온스에 가치가 직접 고정되는 것은 달러화뿐이다. 나머지 국가의 통화 가치는 금이 아니라 달러화에 고정된다.

문단 3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 1)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 2)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 ▶ 문단2를 토대로 도출되는 새로운 내용이다.
- 3)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 4)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

▶ 기존에는 '금 태환 조항'에 따라 35달러로 금 1온스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달러화의 평가 절하로 50달러로 금 1온스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자. 상대적으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감소하는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3)의 해결책으로 적절하다.

▶ 맥락 짚기

트러핀 달러화의 초점이 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체제에서는 금과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으로 활용된다.

▶ 맥락 짚기

따라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각국 통화의 가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정되어 있는 '고정 환율 제도'를 따른다. 현대 국제 유동성인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왜 이러한 제도가 붕괴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으니, 집중해야겠다.

▶ 주목

이제 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는지 알겠다. 미국이 더 이상 금 태환 의무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금 준비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주목 ▲

여기서 달러화에 대한 해당 통화의 환율이 내려가면/올라가면 해당 통화 가치는 올라간다/내려간다는 관계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주목 ▲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평가 절상이 경상 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평가 절상은 경상 수지 적자에 기여하는 요인이 된다. 5)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 5) ……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 반대로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른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달러화의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 6)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

▶ 한마디로 ‘금 태환 조항’을 뜯어고칠 수는 없었다는 얘기다.

- 7) ……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평가 절상 = 환율 ↓ = 경상 수지 적자에 기여
평가 절하 = 환율 ↑ = 경상 수지 흑자에 기여

- 8)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애초에 불가능했고, 나머지 통화의 평가 절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렇게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문단 4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 지속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한 이후에도 왜 달러화가 계속해서 국제 유동성으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기축 통화가 없는 편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다.

[14~17] (기술) 주차 보조 시스템 카메라의 영상 보정 기술

- 1) 주차 보조 시스템 카메라의 영상 보정 기술을 위한 왜곡 보정, 시점 변환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들의 수준이 높거나, 개념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글 안에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 오히려 읽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욱 헷갈렸을 것이다.
- 2) 연계 양상 : EBS 비연계 지문이다. 다만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었던 만큼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는 유사한 영상 기술 관련 지문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고난도 문항 해설 15번

❖ ㉠~㉢ 설명

㉠(촬영된 영상)은 왜곡 보정을 거쳐[→ 내부 변수에 의한 왜곡과 외부 변수에 의한 왜곡을 제거하여] ㉡(왜곡이 보정된 영상)이 된다. 다만 이는 특정 방향에서 바라본 영상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점 변환’을 거쳐야 한다. 시점 변환에 의해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지는 것이다[→ 원근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 정답 설명 : ②

- 1)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은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이는 원근 효과가 남아 있다는 것과 동치이다.
- 2)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는 ‘시점 변환’을 거쳐야만 없어진다. 즉 원근 효과는 ㉡이 아니라, ㉢에서 없어진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① ㉡에서는 광각 카메라에 의한,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에 의한 왜곡이 보정된다. 시야각이 다시 작아지는 것이 아니다.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기껏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야각을 확보했는데, 보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작아지게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③ ㉡에서는 ㉠에 존재하는 왜곡이 보정되는 것이 맞지만, 이때의 왜곡은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는 원근 효과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은 카메라 자체의 특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④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다.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은 ㉡에서 이미 제거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⑤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에서 이미 보정된 만큼 ㉢에서 보정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 문학

01. 출제 경향

● 총평

-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논지를 선명하게 읽어 내기 어려운 작품이 제시되었고, 필요한 어휘 풀이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굵은 글씨체로 표시해 주어야 할 지점을 표시해 주지 않는 등 대단히 불친절한 시험이기도 했다. 때문에 지문 분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풀이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또 정답을 비교적 분명하게 제시했지만 표현상 애매한 느낌을 주는 선지가 많은 탓에, 압박감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정오 판단을 하기는 다소 곤란했을 것이다. 이는 평가원 출제진이 난도를 올리기 위해 의도한 결과인지, 그냥 선지를 충분히 다듬지 못한 결과인지 알 수 없다.
- 하지만 이후의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힘과 어휘력을 길러야 할 필요성, 낮은 표현을 빠르게 파악하는 순발력을 요하는 능력 등 기본적인 국어 학습의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 주는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작품 감상을 요하는 <보기> 문항들의 분량이 대체로 짧았는데, 이는 정보량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적용하고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요구하는 교육 방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런 점들에 유의하여 학습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 출제 작품

분야	문항수	작품	EBS 연계
현대시 + 수필	6	이육사, 「초가」	작가 연계 / 수능특강 p.288 (수능특강에는 「광야」가 수록됨.)
		김관식, 「거산호 2」	수능특강 p.288
		이육, 「담초」	비연계
현대소설	4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비연계
고전소설	4	작자 미상, 「박태보전」	수능특강 p.149 (수능특강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이 출제됨.)
고전시가	3	정훈, 「탄궁가」	수능완성 p.165
		위백규, 「농가」	비연계

● 작품 평가

- 전체 7작품 중 3작품이 EBS 연계 작품이고 현대시 1작품이 작가 연계여서, 형식상으로는 연계율 50%에 근접해 있다. 연계 작품 중 2작품은 수능특강에서, 1작품은 수능완성에서 출제되었다.
- 작년 대수능과 마찬가지로, 평가원 기출 작가나 기출 작품의 재출제 경향이 반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 현대시 : 2018학년도 대수능에 이육사의 「강 건너간 노래」라는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육사의 「초가」라는 낯선 작품이 출제되었다.
 - 현대소설 : 2016학년도 대수능에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 또 윤홍길의 작품이 출제되었다. 윤홍길은 2001학년도 대수능에 「장마」가, 2010학년도 대수능에는 시나리오로 각색된 「장마」가 출제된 작가이다.
 - 고전시가 : 정훈의 「탄궁가」는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된 부분이 그대로 재출제되었다. 그때의 출제 지문을 줄여서 제시하면서 다른 부분을 전혀 추가하지 않았다. 위백규의 「농가」는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된 <제2수>~<제4수>를 피해 <제1수>, <제7수>, <제8수>를 출제하였다. 이 작품은 2003학년도 대수능에도 <제4수>와 <제6수>가 출제되었다. 이러한 출제 경향을 볼 때, 특히 고전시가의 경우, 기출 작품에 대한 학습은 여전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2년 연속 수필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극 장르가 출제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하게 수필 작품이 출제되었다. 하지만 고전시가와 수필을 엮어서 제시한 6월 모의평가와 달리, 이번에는 현대시와 수필을 엮어 복합지문으로 제시했다.
- 수필인 이육의 「담초」는 한문 작품을 번역한 것이다. 대단히 현대적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맥락이 뒤집히는 지점들이 있어서 독해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독해력을 요구하는 수필 작품이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 고전소설 「박태보전」의 출제는 다소 의외였다. 인현왕후 폐비 사건을 소재로 한 실기(實記, 실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은 기록)류 소설에 속하는 작품으로, 그동안 출제되어 온 고전소설의 특징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고전소설의 출제 대상을 확장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EBS 수록본과는 다른 판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고전소설의 서사 전개상 중요한 요소인 '꿈'이 포함된 지문을 출제하였다.
- 현대소설 갈래에서는 현세대 작가진의 작품을 출제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더욱 확실해졌다. 2020학년도 대수능에는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이, 2021학년도 대수능에는 서영은의 「사막을 건너는 법」이 출제되었고, 올해는 윤홍길의 「매우 잘 생긴 우산 하나」가 출제되었다. 이는 이미 교과서 개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국어 교과서와 문학 교과서를 막론하고 현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수록된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면, 수험생들은 현대소설사에서 이미 고전으로 분류된 옛 작가의 작품들과 더불어 최근 작가의 작품들 역시 적극적으로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

02. 작품 분석

[18~23] (현대시-수필) (가) 이육사, 「초가」 / (나) 김관식, 「거산호 2」 / (다) 이육, 「담초」

주목해야 할 작품 (2022학년도 대수능 대비) : 김관식, 「거산호 2」 중요도 A

- 올해 수능특강에 [이육사의 「광야」 + 김관식의 「거산호 2」 + 박완서의 「죽은 새를 위하여」] 복합지문 세트가 실려 있는데, 그 세트에서 이육사의 시를 교체하고 박완서의 수필을 다른 작가의 작품으로 교체하여 출제했다. EBS 연계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계율이 낮아졌다고 해도 학생들은 EBS 교재를 꾸준히 공부해야 하겠다.
- 문학에서는 이 복합지문 세트의 난도가 가장 높았다. (가) 이육사 시의 구조와 (다) 수필의 주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작품을 함께 감상하도록 한 23번 문항의 오답률이 전체 문학 오답률 중 1위이고, (가)와 (나)를 비교한 22번 문항의 오답률이 2위이다. 22번의 경우, 정답 외에 정오 판단이 애매한 선지들이 2개나 섞여 있었다. 23번의 경우, (다)를 설명한 ④번(정답) 선지와 ⑤번 선지의 선택률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필 (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독해 난도가 높고 낯선 수필 작품을 복합으로 제시하는 출제 경향이 유지되고 있음에 다시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고난도 문항 해설 22번

❖ 정답 설명: ①

- (가)의 '묵화'는 '먹으로 칠고 얹음을 이용하여 그린 그림'을 뜻한다는 점에서 먹의 어두운 이미지가 환기되며, 이는 박쥐 나래 [→ 박쥐 날개]의 어두운 이미지와 연결되어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낸다. 이는 고향에 대해 화자가 현재 갖고 있는 인식이 반영된 것일 테다.
- 또한 '초가 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등의 모습에서 해가 지며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 전반부의 (가)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 한편 (나)의 화자가 '북창'에서 '산을 보고 산을 배우'겠다며 '그 품[→ 산의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 산의 품]에 가 또 묻히'겠다고 한다는 점과,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이라고 산을 호명한다는 점에서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 후반부의 (나)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다.

❖ 오답 설명

- ② (가)의 '황혼'은 어두워지는 옛 고향의 모습을 떠올린 화자의 회상의 파편이다. 따라서 이와 연결되는 '묵화'가 현실적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나)의 '저승의 밤'은 '산'이 '이승의 낮'과 연결해 주는 소재일 뿐,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지 않으며 '북창' 역시 이와 대응되지 않는다.
- ③ (가)의 화자가 '묵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묵화가 시간이 흘러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다. 이는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의 모습이 옛 모습이기 때문이며, 세월의 깊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가 '오늘, 북창'을 연 것은 '사람'과 달리 '태고로부터 푸르른 산'을 향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인식의 변화의 시점이 '오늘'이라고는 볼 이유가 없다.
- ④ (가)의 제2연에 드러난 '띄엄 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고향을 그림으로 표현한 '묵화'와 대응되어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의 화자가 산을 보고 있는 것은 '북창'을 '열어' 봤다는 점에서 화자가 선택하는 세계와의 연결성을 의미하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여기서 '북창'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과 이상적 공간인 산 사이의 연결을 부각하는 이미지이다.

- ⑤ (가)의 ‘그림 조각’은 ‘빈 바구니’를 차고 오기가 ‘부끄러워’ ‘모매꽃’을 피워 낸다. 이러한 ‘그림 조각’은 ‘묵화’와 대응된다는 점에서, ‘묵화’에 ‘모매꽃’의 부끄러운 정서가 담겨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나)의 ‘보옥’은 ‘산’이 자랑할 수 있음에도 자랑하지 않는 물건이다. 또한 화자는 ‘복창’을 통해 이러한 산을 보고 ‘겸허’함을 느끼고 이를 사랑하고 배우려고 한다. 따라서 화자가 ‘복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아낸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고난도 문항 해설 23번

❁ <보기> 설명

- 1) 문학적 표현의 대상을 관념, 사물로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론적 설명이다. 이러한 정보에 맞춰 (가), (나), (다)에 드러난 문학적 표현 방법에 대해 묻는 선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한다.
- 2) (가)에는 시간과 관련된 ‘호롱불’, 현실과 관련된 ‘뗏목’이, (나)에는 이해관계가 관련된 ‘장거리’, (다)에는 가치와 관련된 ‘소’와 ‘나비’가 바로 <보기>에서 설명한 문학적 표현이다.

❁ 정답 설명 : ④

‘부호’의 의미가 재산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의 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인간에 의해 귀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적막한 분위기’를 환기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

❁ 오답 설명

- ① (가)의 ‘초가’에 사는 사람들은 ‘황혼’이 묻혀 오는 저녁 시간이 되자 ‘집집마다 호롱불’을 켜고, 따라서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을 통해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가)의 ‘젊은이’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가게 된다는 점에서 ‘뗏목’은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뗏목’을 타고 객지로 향한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점에 주목할 때, ‘젊은이’가 겪은 삶의 불안정함을 엿볼 수 있다.
- ③ (나)에 드러난 ‘장거리’는 ‘맨날 변’하는 ‘사람’의 속성이 얹혀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변하지 않는 산의 속성과 달리,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가 환기된다.
- ⑤ (다)에서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은 하찮게 취급되는 풀에 대응되고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은 귀하게 여겨지는 풀에 대응된다. 물론 화자는 궁극적으로 그러한 쓰임새와 무관하게 하늘이 모든 풀을 조화가 균일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선지의 구절에서는 둘 간의 차이가 구체적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다.

[24~27] (현대소설)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비연계 작품이다. 1987년 발표 작품으로서 당시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소설인데, 전체 문학 세트 중 가장 오답률이 낮은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무리 없이 읽어 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비연계 출제는 현대소설 갈래에서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비연계 작품에서는 난도를 높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8~31] (고전소설) 작자 미상, 「박태보전」

주목해야 할 작품 (2022학년도 대수능 대비) : 중요도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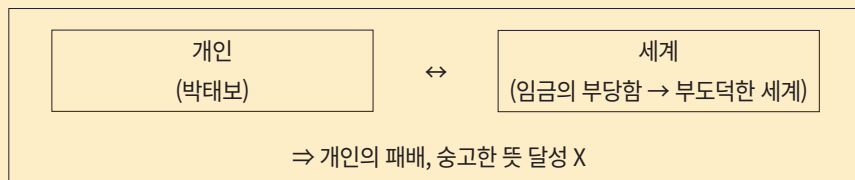
-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편이다. 줄거리 파악에 핵심적인 고전 어휘들의 의미를 풀이해 주지 않았고, 선지에 제시된 상황을 지문 내용과 연결하는 것도 다소 애매하였다. 29번의 ⑤번 선지와 31번의 ④번 선지 오답률이 각각 1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아,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으로 찍고 넘어간 학생들도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 내용 이해를 묻는 28번의 경우, 어휘 풀이가 안 되어 있는 것과 결부되어 정답 선지는 그에 내포된 중요한 의미를 전혀 드러내지 못하였고, 나머지 선지들은 매우 지엽적이었다.
- 문학 오답률 3위인 31번 문항의 경우, 지문에 있는 '전고 충신', '몽사', '불명한' 등의 표현을 선지에 인용구도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평가원 기출의 출제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동안 평가원은 직접 인용한 구절이 아닐 경우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지를 현대어로 풀어서 써 주었다. 이런 변화들이 이번 시험의 난도를 높인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주요 고전소설 작품들을 학습하면서 어휘력을 키워 둬고 동시에 문맥의 흐름에 따라 서사의 흐름을 판단하는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을 환기하는 세트라고 할 수 있겠다.

고난도 문항 해설 31번

❗ <보기> 설명

1)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 「박태보전」의 갈등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박태보와 임금의 갈등을 개인과 세계와의 갈등으로 분석한 것에 유의하자.



2)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 박태보는 패배했지만 '죽기로써 간하'여 임금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송고한 뜻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죽기 전에 부모께 편지로 문안을 올리며 가족에도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은 박태보는 '도덕적 영웅'으로 추대된다.

3)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제시된 지문에 나온 서사 장치들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목 ▲ 「박태보전」은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영웅'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 주는 인물이다.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음에도 그가 한 윤리적 행위들로 인해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보기>의 설명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답 설명 : ⑤

- 1) '장안 백성이 뉘 아니 낙루하리오', '장안 백성이 다 애연하며 구름 뒤편 하더라' 등에서 태보에 대한 민심을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낸 것[→ 서사 장치]을 확인할 수 있다.
- 2) 그러나 태보가 영웅으로 추대된 것은 충직한 신하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다해 임금의 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으려다 죽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태보가 임금의 행동을 바꾸고, 기우는 국운을 회복시킨 것은 아니다. 작품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노래에서 '국운이 말세 되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운이 회복된 상황은 아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박태보 부인의 몽사에서 태보가 '내 무죄하여 탕탕한 청천이 감동하사 사생풍진을 다 버리고 전고 충신을 따라 황성으로 구경' 간다고 한 데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서사 장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하늘의 처우는 태보가 끝까지 윤리적 책무를 다한 도덕적 영웅으로서, 전고 충신들과 대등한 존재로 인정받은 것임을 보여 준다.
- ② 태보가 부모 전에 올린 편지에서 '국운을 또한 갚지 못하옵고 종로 고훈이 되어 구천에 돌아가는 자식'이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임금의 부당한 행위를 바꾸지 못함[→ 송고한 뜻을 이루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이며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태보가 부모 전에 올린 편지에서 '말년 귀체를 안보하시다가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만분지일이나 바라나이다'라고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태보가 죽음을 앞두고 편지로 문안을 올리며 자신이 불효한 죄를 말하고 만세 후에 부자지정을 바라는 것은 태보가 국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어떤 아이들의 노래에서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며 주상의 불명함을 밝은 달과 대비하여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심산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라는 것과 연결해 보면, 백성들이 충신과 중전을 내친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 함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2~34] (고전시가) (가) 정훈, 「탄궁가」 / (나) 위백규, 「농가」

주목해야 할 작품 (2022학년도 대수능 대비) : 정훈, 「탄궁가」 중요도 AA

- 「탄궁가」의 경우,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에 출제된 부분이 그대로 재출제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봄날이 따뜻하여', '쭙고 주린 식구', '가난귀신' 등으로 풀어 주었던 시구를 이번에는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한아(寒餓)한 식구', '궁귀' 등으로 원문 그대로 제시하면서 어휘 풀이를 하나도 달아 주지 않았다.(올해 EBS 수능완성에서도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처럼 현대어로 풀어놓은 지문을 제시하였다.) '후량', '꽤는 모' 등의 어려운 표현도 풀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33번 문제에서 판단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33번의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다.
- 이처럼 고전 작품에 어휘 풀이를 달아 주지 않는 경향은 이미 작년 대수능에서부터 나타났는데, 이는 EBS 연계 학습을 전제한 설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암기를 지양하는 대수능의 원래 취지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미래 수험생의 입장에서 주요한 EBS 연계 작품은 그 내용을 철저히 학습해 두어야 하며, 혹시 어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전체 작품의 맥락에 따라 시구에 담긴 정서를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야 함을 기억해 두어야겠다.

- 「농가」는 비연계 작품이다. 그러나 대수능 기출 작품이며,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에도 출제된 적이 있어서, 고전시가의 기본 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전 장르의 경우, 기본 작품에 대한 학습이 필수적임을 일깨워 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 34번의 경우, <보기>의 지침에 따라 무리 없이 정답을 찾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련해 ④, ⑤번 선지의 표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있다. 작품 「농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고려할 때, 다소 억지스러운 선지이다. 출제 시 조금 더 엄격하게 검토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고난도 문항 해설 33번

❖ 정답 설명 : ⑤

- 1) [A]의 화자는 자신의 가난은 ‘하늘’이 생기게 한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A]에서는 ‘하늘’을 예찬하는 어조가 아니라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는 어조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 2) [B]의 화자는 ‘하느님’이 자신을 위해 ‘면화’와 ‘벼’[→ 너희]를 만들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3) 따라서 해당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설명

- ① [A]에서 화자는 ‘술에 후량(=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지니고 다니는 마른 양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궁귀를 전송하고 있는데, 가난한 형편에 ‘술에 후량’을 갖춘 것은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오뉴월’이 가고 ‘칠월이 반’인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태도로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을 ‘하늘’이 생기게 한 것으로 보며 운명적인 관계로 여기고 있다. 또한 [B]에서 화자는 ‘하느님’이 자신을 위해 ‘너희[→ 면화와 벼]’를 만든 것으로 보며 운명적인 관계로 여기고 있다.
- ④ [A]에서 ‘네 말’은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을 너와 함께하여’ 떠날 수 없다는 ‘궁귀’의 말을 의미한다. 화자는 ‘네 말’에 ‘다 옮’다고 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B]에서 ‘이른 벼의 패는 모’는 옮겨 심어 놓은 ‘벼’에 나는 이삭을 의미한다. ‘칠월’이 지나 이삭이 무르익으면 추수를 할 수 있게 되므로, ‘반이로다’라는 감탄에는 익어 가는 이삭에 대한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목 ▲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정답을 찾기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고전시가를 읽을 때 시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근거로 하여 시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B]의 화자는 익어 가는 농작물을 보고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면 ‘패는 모’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선지를 판단할 수 있다.

3. 화법과 작문

01. 출제 경향

● 총평

-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 대수능은 물론, 올해 치러진 두 번의 모의평가에 비해 확실히 어려웠다. 이는 ‘화법과 작문’이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치러진 대수능이어서, 또 다른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와의 난이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계산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올해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 대수능에 비해 문항 수가 하나 늘었지만 출제 형식은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화법([35~37번])’에서는 ‘발표’가 출제되었는데, 발표는 대수능과 모의평가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형식이다. ‘화법-작문 통합([38번~42번])’ 역시 ‘건의문-대화’가 출제되었는데, 이러한 문항 구성 역시 대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자주 출제되던 것으로 익숙하다. ‘작문([43~45번])’에서 학생의 글이 아닌 기자가 작성한 초고가 등장한 것이 새로웠지만, 문항 구성 자체는 ‘작문’에서 항상 출제되던 것들이어서 ‘화법과 작문’ 전체에서 출제 형식으로 인한 낯설음은 없었을 것이다.
- 다만, 선지 가운데 함정으로 장치한 부분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정답을 찾지 못해 선지를 다시 읽거나 지문을 거듭 점검하느라 문제 풀이에 시간을 허비한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작문’에서 소재가 연계되기는 했는데, 그마저도 주된 소재가 아닌 지문에 언급된 정도여서 이를 가지고 연계라고 말할 수 있나 싶은 수준이다. 때문에 ‘화법과 작문’에서 EBS 교재와의 연계를 논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7] 화법(발표) 17세기의 우리 음식 소개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후 ‘화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발표가 또다시 출제되었다. 문항 구성은 ‘발표에서의 말하기 방식’([35번]), 발표 전략([36번]), 청중의 듣기 활동([37번])으로, 발표 세트에서 익숙한 구성이었다. ‘화법’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자주 다뤄 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음식디미방」이라는 17세기 조리서를 가지고 지문을 구성했다. 하지만 발표를 통해 전달하려는 가치나 의미가 지문에 담겨 있지 않고, 단순히 정보를 늘어놓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에서 지문의 내용 구성이나 내용 서술 자체가 아쉽다.

- 35번 :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것으로 발표 세트의 전형적인 첫 번째 문항이다. 다만, 기존에는 어느 발표 문제에 적용해도 될 법한 전형적인 말하기 방식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이번에는 지문의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방식 문제였다.
- 36번 : 발표 전략을 묻는 문항으로, 발표 상황과 청중 분석을 통해 발표자가 발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였다.
- 37번 : 청중의 듣기 활동에 관한 문항으로, 발표 세트의 세 번째 문항에서 꾸준히 다뤄 오던 것이라 학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다.

[38~42] 작문·화법 통합(건의문-대화) 교내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

(가)의 건의문과 (나)의 학생들의 대화로 구성된 ‘작문·화법 통합’ 세트이다. 학생들의 대화(대화, 토의, 회의 등으로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영역으로 파악해도 무방함)인 ‘화법’과 이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작문’으로 구성된 ‘통합’ 세트는 ‘화법’과 ‘작문’의 순서만 바뀔 뿐 대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자주 출제되는 형식이다. 지금까지 ‘통합’ 세트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것이 대화(토의, 회의)이며, 올해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에서도 ‘통합’ 세트에는 대화가 출제되었다. 또 건의문 역시 ‘통합’ 세트에서는 물론 ‘작문’ 세트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건의문에 대한 철저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통합 지문의 내용은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문항 곳곳에 함정과 같은 요소들이 있었다.

- 38번 : 건의문에서의 작문 맥락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작문 맥락을 파악하는 문항은 올해 9월 모의평가와 예시문항에 동일하게 출제되었던 것이라 기출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 39번 : 건의문이라는 글의 구성상 특징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가)에 제시된 건의문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 문항이다. 다만, 정답인 ①번 선지가 <보기>에 제시된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는 선지인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조금 모호해 어려운 문제였다.
- 40번 : 대화(토의, 회의) 참여자들 가운데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학생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로, 지난해 대수능 ‘통합’ 문항에서도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다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40번 문항에서의 정답이 ③번 선지로 명확하기는 했지만, 선지에 함정 같은 요소가 있어서 꼼꼼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실수하기 쉬운 문제였다. 더욱이 ④번 선지의 서술이 부정적으로 진술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학생들은 선지의 내용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정답을 ④번 선지로 고른 학생들이 매우 많았을 것이다.
- 41번 : 대화(토의, 회의)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항으로, 대화(토의, 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전형적인 문제이다.
- 42번 : 올해 출제된 ‘화법과 작문’을 통틀어서 가장 낮은 문항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화(토의, 회의)의 흐름상 특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나)에 제시된 대화(토의, 회의)의 특징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문항이기는 했지만 문제 자체는 워낙 평이했기 때문에 다들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43~45] 작문(기사문)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

‘작문’의 지문으로는 항상 학생의 글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기자가 작성한 초고가 출제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상황 설정만 다를 뿐 내용적으로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는 건 아니어서 지문이 낯설지는 않다. 또 기자가 작성한 전문적인 글이라고 하기엔 지문의 내용 구성이나 전개가 상당히 부실해서 아쉬움이 크다. 문항 구성은 ‘글쓰기 방법’([43번]), ‘고쳐쓰기’([44번]), ‘자료 활용’([45번])으로 ‘작문’ 세트에서 익숙한 구성이다.

- 43번 : 제시된 초고의 글쓰기 방법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지난해 대수능 ‘통합’ 문항에서 유사하게 출제되었다.
- 44번 : 고쳐쓰기 문항으로,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8번 문항과 매우 흡사한 문제였다.
- 45번 : 전형적인 자료 활용 문항이라 학생들에게 익숙한 문항이지만 난이도를 고려한 타인지 자료를 불친절하게 서술해서 학생들이 자료를 읽고 다시 점검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기 좋게 함정 선지가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와 선지를 꼼꼼하게 읽지 않는 학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문제였다.

4. 언어와 매체

01. 언어

● 총평

- 문법은 국어사, 형태론, 화용론, 통사론, 한글 맞춤법에서 출제되었으며 음운론에서는 출제되지 않았다.
- 기존의 출제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문법 개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 문항의 형식이 복잡하지 않고 제시된 개념 또한 교육 과정 내에서 익숙하게 다뤄 왔던 것들이지만, 제시되어 있는 정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용례에 적절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었다.
- 지문의 정보량이 많고, 중세 국어에서 지문이 출제되어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35~36] 국어사(형태론)

형태론과 국어사를 융합한 지문으로, 명사 파생 접사와 부사 파생 접사 그리고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에 대해 그 쓰임과 형태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다루고 있는 개념이 어렵지는 않았지만 지문에 제시된 정보가 많아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문항에 적용할 수 있었는가가 정답 판별의 핵심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37] 화용론

맥락을 고려하여 담화에서 언급된 대상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른 지식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므로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38] 통사론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을 파악하고, 그 성분의 종류 또한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교육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뤄 온 개념이지만, 안긴문장이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파악해야 했으므로 필수 성분을 판단하기에 다소 까다로웠을 것으로 보인다.

❖ 문항 설명

- 1)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과 그 성분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고교 언어(문법)의 기본 학습 사항이다. 다만, 단어뿐만 아니라 안긴문장 역시도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했다.
- 2) 문장에서 안긴문장이 어떠한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선지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정답 설명 : ①

<보기>의 서술어 ‘유리하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이때 명사절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는 ①번 선지의 ‘속했다(속하다)’이다.

❖ 오답 설명

- ②, ③ ‘여뒀다(여미다)’와 ‘지었다(짓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는 <보기>와 같지만 종류는 같지 않다.
- ④ ‘걸었다(걷다)’는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지 않다.
- ⑤ ‘보냈다(보내다)’는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지 않다.

[39] 한글 맞춤법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적용해 나가야 했으므로 답을 찾을 때 시간이 다소 소요됐을 것으로 보인다.

02. 매체

● 총평

- 대수능 ‘언어와 매체’의 ‘매체’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더 고난도의 문제는 특별히 없었다. 다만, 지문의 정보량이 많은 편이고 선지 길이가 짧지 않아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제법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언어적 특성(언어 연계), 매체의 비판적 수용, 매체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하나로 묶은 4문항 세트와 ‘매체의 표현 방식과 매체의 생산 계획’을 다른 하나로 묶은 2문항 세트가 출제되었다. 크게 보아 4문항 세트는 매체의 수용, 2문항 세트는 매체의 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세트에는 사용된 매체들의 특성을 묻는 내용이 각각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세트 구성은 ‘언어와 매체’ 교과서가 다루고 있는 지점들을 고루 포함하려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 2022학년도 예시문항이나 6월 모의평가와 달리 9월 모의평가처럼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다. <보기>를 통해 선지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으로 선지를 해석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문제가 쉬워 <보기>가 없었어도 문제를 푸는 데에는 큰 지장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2022학년도 예시문항부터 대수능까지 비판적 수용이 포함된 세트에는 방송 뉴스 혹은 신문 기사가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다. 매체의 주체적 수용에 있어 보도 매체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제 측면에서 EBS 교재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다.

● 지문 평가와 문항 분석

[40~43] 언어-매체 통합(TV 방송-신문, 앱) 사전 등록제 미디어 비평 화법

여러 신문 기사들을 같이 다루는 미디어 비평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프로그램에서 다루지는 신문 기사 중 하나는 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신문, 앱이라는 세 가지 매체를 다루고 있다. 문항 구성은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40번]), 매체의 언어적 특성([41번]), 매체의 비판적 수용([42번]), 매체의 의사소통적 특성([42번])’으로 크게 보아 매체의 수용에 관한 세트라고 볼 수 있다.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에서 매체의 수용을 다루는 세트의 지문은 주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사였는데, 이번에는 신문 기사들을 비평하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이 지문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의 매체적 특성과 신문의 매체적 특성, 더 나아가 신문 기사가 다루는 앱의 매체적 특성까지 문항에서 다룰 수 있었다.

- 40번 :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묻는 문항이다. 텔레비전 방송이 여러 종류의 신문 기사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방송을 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있으므로, 텔레비전 방송의 정보 구성 방식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41번 : 매체 자료의 언어적 특성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2022학년도 예시문항,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것과 같은 형식이다. 기본적인 언어 개념을 바탕으로 그 쓰임과 의미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 42번 :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매체 자료의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 등 수용자들이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화법’에서 ‘청중의 듣기 활동 분석’과 유사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43번 : 매체 자료의 의사소통적 특성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매체 자료의 특징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이 <보기> 없이 선지에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매체 영역에서는 별도의 선지 해석의 근거 없이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답을 고르는 근거는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에서 갈렸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매체 자료의 의사소통적 특성, 그중에서도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뉴미디어의 의사소통적 특성을 묻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44~45] 매체(블로그-스토리보드) 재생 종이

블로그와 스토리보드로 구성된 매체 단독 세트이자 매체 생산 세트이다. ‘블로그의 표현적 특성을 묻는 문항([44번]), 스토리보드를 활용한 동영상 생산 계획에 대해 묻는 문항([45번])’으로 구성되었다. 9월 모의평가에서 뉴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매체 자료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완성된 매체 자료를 제시하여 뉴미디어와 매체 자료의 표현적 특성과 매체 자료의 생산 계획에 대해 묻는 문항을 구성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스토리보드의 경우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되었다.

- 44번 : 블로그의 표현적 특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따라서 하이퍼링크, 동영상이나 사진 자료의 활용, 다양한 형태의 글자의 사용, 소재목 활용 등에 대한 선지가 제시되었다.
- 45번 : 스토리보드 생산 계획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표현 기법을 활용해 영상 제작 계획인 스토리보드를 구성하였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



2023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한 조언

01. 선부른 난이도 예측은 금물이다.

- 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대로 구현될 수 있지만, 때로는 출제자의 의도와 달리 예상보다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
-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쉽게 출제되면 크게 문제될 것 없지만, 쉬울 것 예상했다가 어렵게 출제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 따라서 자신이 볼 대수능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하에 좀 더 강도 높게 평소에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문제를 틀리면 위안 삼아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야.'라며 문제를 부정해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 가지 출제 가능성을 열어 놓는 유연한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02. 독서 영역에서 실력을 충분히 함양할 필요가 있다.

- 올해 대수능도 그렇듯이, 최근 대수능에서 독서는 변별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독서는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난도를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 독서 영역에서 굳건한 실력을 길러 놓아야 80분의 국어 시험 운용이 순조로울 수 있다.
- 독서는 지문 읽기와 문제 풀이 중에 지문 읽기 능력이 더 중요한 영역이다. 지문을 잘 읽고도 문제를 틀리는 경우보다는 지문을 잘못 읽거나 불확실하게 읽어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 독서에서 강해지기 위해, 대수능에 출제될 만한 제재가 담긴 지문을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수능에 나올 킬러 지문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량이 많은 지문, 이해가 어려운 지문, 불친절한 지문 등 다양한 지문에 자신을 노출시켜 실력을 끌어올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03. 문학 영역은 비연계 지문, 밀도 높은 선지에 대비해야 한다.

- 2022학년도 대수능부터 EBS 연계 출제 비율이 50%로 줄어들었다. 연계 혜택만 믿고 있을 수 없으므로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장르별로 작품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익힌 후에는 실전 문제를 통해 낯선 작품에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 가령, 시의 경우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 대상의 특성, 화자의 정서·태도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소설의 경우에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체크하고 인물의 심리, 인물 간의 관계에 주목해서 읽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문학은 작품에 대한 독해 못지않게 선지를 정밀하고 정확하게 읽는 능력도 중요해졌다. 최근 문학의 선지들이 내용의 밀도가 높아지자 학생들이 선지를 주관적으로 읽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최근 기출문제에 등장하는 선지의 표현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작품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익혀 두는 것도 필요하고, 최근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시험지로 훈련을 하는 것도 요긴하다.

04.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선택은 신중히 하되, 선택 후에는 공부에 매진하자.

- 선택과목이 생기면 수험 생활 내내 과목 선택을 고민하며 이리저리 기웃거리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선택과목은 보정 절차를 만들어 특별히 어느 쪽에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 그러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택한 후에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하지 않고 대수능 직전까지 유리한 과목만 찾아다니는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
- 참고로, 화법과 작문은 개념 공부에 대한 부담감은 적은 대신 꾸준한 실전 연습이 필요한 과목이다. 언어와 매체는 개념 공부를 충실히 해 두면 유리한 대신 구체적인 용례에 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공부를 확실히 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IV

수능과 이감의 연계 양상

독서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양상
독서론 [1~3]	독서를 통한 자아 성찰	비연계	2022 이감 시즌6-2차
인문-인문 통합 [4~9]	헤겔의 변증법적 체계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견해	수완 p.216	2022 이감 시즌6-4차 2022 이감ON 6차 / 강대 3차 2022 간쓸개 시즌6-4차 2022 간쓸개 시즌6-5차
사회 [10~13]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수완 p.147	2022 이감 시즌5-4차 2022 이감 시즌5-7차 2022 이감 시즌6-10차 2022 간쓸개 시즌5-2차
기술 [14~17]	주차 보조 시스템 카메라의 영상 보정 기술	비연계	2022 이감 시즌6-3차 2022 이감 시즌6-10차 2022 간쓸개 시즌3-4차

문학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양상
현대시 + 수필 [18~23]	(가) 이육사, 「초가」	비연계	
	(나) 김관식, 「거산호 2」	수특 p.288	2022 이감 시즌4-4차 2022 간쓸개 시즌5-3차
	(다) 이육, 「담초」	비연계	
현대소설 [24~27]	윤홍길,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	비연계	
고전소설 [28~31]	작자 미상, 「박태보전」	수특 p.149	2022 이감 시즌5-5차
고전시가 [32~34]	(가) 정훈, 「탄궁가」	수완 p.165	2022 이감 시즌5-4차 2022 이감ON 10차 2022 간쓸개 시즌5-4차 2022 간쓸개 시즌6-1차 2022 간쓸개 시즌6-9차
	(나) 위백규, 「농가」	비연계	2022 간쓸개 시즌1-7차 2022 간쓸개 에센셜 02

화법과 작문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양상
화법 [35~37]	17세기의 우리 음식 소개 (발표)	비연계	2022 이감 시즌4-5차 2022 이감 시즌6-1차
화법-작문 통합 [38~42]	교내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 (건의문-대화)	비연계	2022이감 시즌5-1차 2022 이감 시즌6-10차 2022 이감ON 9차
작문 [43~45]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 (기사문)	수특 p.96	2022 이감 시즌6-9차 2022 이감 시즌6-10차 2022 이감ON 3차

언어와 매체

세부 영역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양상
국어사(형태론) [35~36]	문법 형태소의 형태와 의미	수특 p.68 수특 p.86	2022 이감 시즌6-6차 2022 언어 200제
화용론 [37]	지시 표현	수특 p.75 수완 p.186	2022 이감 시즌1-2차 2022 이감 시즌6-3차 2022 언어 200제
통사론 [38]	서술어의 자릿수	수특 p.98 수특 p.112	2022 이감 시즌5-2차 2022 이감 시즌6-5차 2022 이감ON 8차
한글 맞춤법 [39]	준말	수특 p.96	2022 이감 시즌4-5차 2022 이감ON 8차 2022 언어 200제
매체1 [40~43]	사전 등록제 미디어 비평 화법 (TV방송-신문, 앱)	비연계	2022 이감 시즌5-2차 2022 이감 시즌6-5차 2022 이감ON 4차
매체2 [44~45]	재생 종이 (블로그-스토리보드)	비연계	2022 이감 시즌4-5차 2022 이감 시즌6-5차

인문 통합 (주목해야 할 지문 : A)

독서

- 인문 통합 지문에서 제시한 헤겔의 절대정신 개념과, 철학을 바라본 관점에 대하여 동일한 표현과 동일한 논리로 설명하였음.
- 이러한 논리는 8번 <보기> 문항의 정답과도 긴밀히 닿아 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ON 모의고사 6차(강대 3)
2022 간쓸개 시즌6-4차
2022 간쓸개 시즌6-5차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황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8. <보기>는 헤겔과 (가)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22~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헤겔은 이성주의자이면서도 예술에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한 대표적 사상가이다. 그는 우리가 흔히 예술의 목적으로 여기는 즐거움, 유희, 장식 등의 측면들은 예술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 충분치 않다고 보고 예술의 소임이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진리를 드러내는 사명은 예술과 철학이 공유하지만 예술만이 갖는 고유한 측면도 있다고 보았다.

진리이다. 감정은 감성적인 것에 속하고 진리는 이성적인 것에 속하므로 양자는 대립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헤겔은 이성적인 것 속에 감성적인 것이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를 감성적으로 사로잡는 드라마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감성적

보편성은 궁극적으로 사유를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볼 때 감성적인 것 속에 이성적인 것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주의자인 헤겔은 이를 이성적인 것의 보편성이 감성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유는 인간이 본성상 이성과 감성을 결합시켜 통일시키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헤겔이 보기에 인간의 모든 감성적인 직관 작용 속에는 사유 작용이 존재한다. 감정이 보편적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감정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감성을 포괄하는 이성적인 성격에 의해 그러하다. 헤겔에 따르면 감성을 포괄하는 이성의 보편성으로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헤겔은 사람들이 예술 작품에서 깊은 감동과 더불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이유를 예술이 ㉠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때의 진리는 과학적 진리를 넘어서 인간의 삶과 세계에 대한 총체적 진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헤겔의 입장은 진리와 ㉡ 미(美)를 독자적인 것으로 보는 칸트의 예술론과 상충하는 것이다. 칸트는 진리가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면 미는 주관적 취미를 다루는 예술의 영역에 속

인문 통합 (주목해야 할 지문 : A)

독서

· 인문 통합 지문의 (나)에서는 변증법적 체계성을 기반으로 한 종합을 실현할 수 있는 예술의 위상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하였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4차
2022 간쓸개 시즌6-5차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아도르노는 '부정의 부정'이 곧 긍정이라는 생각은 관념상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러 대상들에서 모순적인 것들을 ㉢ 초월하는 동일성을 찾아 논리적으로 개념화하는 동일성 사유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관념이나 논리에서 벗어나 현실을 주목할 때 '부정의 부정'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근대의 역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부정의 변증법'을 제시한다. 이는 대상마다 각기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질인 비동일성을 현실에서 찾아 중심에 두는 것을 말한다. 그는 논리적인 부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비판적 사유란 논리적 개념화에 의해 소실될 차이나 비동일성에 대한 인식이다. 고유의 질적 특성들을 존중할 때 인간에 대한 전면적 지배나 자연에 대한 일방적 이용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자들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에 들어 인간의 정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헤겔은 천연 그대로의 자연미보다 정신 활동으로 일군 미적 가상이 주는 인공미가 더 아름다운 것이라 보았다.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예술이 참된 진리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나아가 헤겔은 경험적 현상으로서의 가상과 예술적 가상인 미적 가상을 구분하고, 일상적 경험에서는 감각이 방해하여 이념이 왜곡된 채로 드러나기 쉽지만, 예술에서는 감각과 이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념이란 사물의 본질적 존재라 할 수 있는 실재와 그에 대한 개념이 합치된 것으로서 존재의 참다운 의미이자 보편적 의미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미적 가상은 이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념이 가상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미가 완전하게 실현된 상태인 이념상이 되도록 돕는다.

사회 (주목해야 할 지문 : AA)

독서

- 사회 지문에서 중심 소재로 제시되어 있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원리와 붕괴 과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설명하였음. 수능 사회 지문에서 생략되어 있는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과 환율 변화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여 이해에 도움을 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10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4차, 7차
2022 간쓸개 시즌5-2차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상 수지는 일정 기간 동안의 교역에 의한 수지, 즉 수출 총액에서 수입 총액을 뺀 값이다. 교역은 외환을 거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 각국

말한다. 모든 나라가 금과 일정한 교환 비율로 통화를 고정시키고 자국이 가지고 있는 금의 규모에 따라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금 본위제가 대표적인 고정 환율제이다.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등장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달러만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화폐들은 ④ 달러에 고정시키는 제도로, 금 본위제와 변동 환율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고정 환율제이지만, 각국 화폐와 달러의 교환 비율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변동 환율을 통한 경상 수지 회복을 허용하였다. 막대한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미국은 달러화를 대량 발행하여 세계 시장에 공급하였고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갖는 대가로 자국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개방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 규모가 커져도 달러화 발행을 통해 큰 문제없이 경제를 운용할 수 있었고, 다른 국가들은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경상 수지를 회복하고 전쟁으로 무너진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

투자 수익률 차이로 인해 달러에 대한 원화의 교환 비율을 뜻하는 환율이 내려간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서 외환 시장에 달러가 더 많이 [A] 공급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꾸로 환율 변동이 투자 수익

없다. 그렇게 되면 개발 도상국의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고, 경상 수지 적자가 심화되어 외환 보유고가 급감한다. 이렇게까지

때문이다. 투기성 자본의 대거 이탈은 해당 신흥국의 금융 자산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로 바꿔 수출되는 것이므로 신흥국 화폐의 달러화 대비 환율 급등을 야기한다

더해지기도 한다. 신흥국의 화폐가 저평가되어 있었다면 신흥국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신흥국 화폐를 대규모로 사들임에 따라 하락한 환율로 인해 자금 회수 시에 환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술 (비연계)

독서

- 기술 지문은 비연계였으나, 원근의 반영 여부와 관련하여 카메라 보정, 변환 기술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련 주제를 여러 차례 다루었음.
- 기술 지문에서 다루는 왜곡 보정 기술에 대하여 간쓸개에서 설명하였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3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10차
2022 간쓸개 시즌3-4차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불룩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 촬영된 영상과 실제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 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위성 카메라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인 관측 폭은 CCD가 대응하는 지표면의 폭을 말하며 (화소의 개수×지상 화소 거리)로 구한다. 보통의 디지털 카메라에 장착되어 있는 CCD가 정사각형 모양인데 반해, 위성 카메라의 CCD는 화소가 일렬로 늘어져 있어 길쭉한 모양이다. 이는 지표의 넓은 폭을 연속적으로 촬영하기 위함이다. 지제도 위성은 늘 남북 방향으로만 이동하며, 위성 카메라는 원하는 장면을 한 번 찍는 것이 아니라 위성이 지나가는 길의 아래쪽에 있는 지표를 훑어가면서 연속적으로 촬영한다. 이때 CCD의 긴 폭은 위성의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놓인다.

한편 위성 카메라로 촬영하여 얻은 영상 자료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왜곡이 발생한다. 특히 왜곡에는 지표의 절대 위치에 차이가 발생하는 기하학적 왜곡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지표가 곡면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이 있다. 위성 영상에 나타나는 지구 곡률에 의한 오차는 1km 당 남북 방향으로 약 1.2m, 동서 방향으로 약 0.04m 줄어든 값을 보인다. 또한 위성이 남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도중에 지구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이 있다. 이 때문에 촬영된 지역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동서 방향으로 찌그러진 사각형 형태를 보인다. 찌그러진 정도는 촬영 지역의 범위에 비례하여 커지고, 위성의 이동 속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보정 작업이 필요하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카메라로 촬영한 2차원 영상은 3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2차원 평면에 투영시켜 얻은 것이어서 거리 정보를 직접 담지 못한다. 다만 인간이 두 눈에 각각 유입된 시각 정보의 차이를 통해 물체들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는 것처럼, 두 대의 카메라로 찍은 두 개의 2차원 영상을 활용하면 스테레오 비전 기술로 물체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상품에 표시된 줄무늬인 바코드는 늘어져 있는 검은 직선들을 통해 나타나는 흰 부분과 검은 부분의 위치와 두께로 숫자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이다. 보통은 스캐너를 바코드에 가까이 가져가서 적외선 레이저를 쏘고 반사된 레이저를 감지하여 그 정보를 인식하는데, 넓은 영역의 어느 한쪽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해야 할 때에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영상에서 바코드를 찾아 추출하는 영상 변환을 거쳐야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다.

㉠ 영상 변환의 목적은 바코드가 기울어져 있거나 일부가 손상되어 있더라도, 영상에서 검은 직선들을 추출하여 세로로 늘어선 형태로 변환하는 데에 있다. 이는 색상 정보를 없애는 단계인 흑백화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경계점들을 찾는 단계가

현대시 (주목해야 할 작품 : A)

문학

- 김관식의 '거산호 2'를 공통으로 다루었으며, 중심 소재인 '산'에 대한 문항의 내용이 거의 일치함.
- 선지의 정답 및 오답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을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도 다루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4-4차 2022 간쓸개 시즌5-3차

(나)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 정기(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 2」 -

(나)

㉠ **오늘**, 북창(北窓)을 열어,
장거릴 등지고 산(山)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 태고(太古)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壽)하는 데다가
보옥(寶玉)을 갖고도 자랑 않는 겸허한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가 또 묻히리니
㉤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峨峨)라히* 뻗쳐 있어 다리 놓는 산.
네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
㉥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산정기(山精氣)를 그리며 산다.

- 김관식, 「거산호(居山好) 2」 -

*아아라히: 산이나 큰 바위 따위가 험하게 우뚝 솟아.

22. 「목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목화'와 '박쥐 나래'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나)에서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하여 산이 주는 아늑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 '목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의 밤'이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대응된다.
- ③ (가)에서 '목화'에 '좀이 쳐'라고 한 것은 화자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목화'를 '그림 조각'이라고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나타낸다.
- ⑤ (가)에서는 '목화'에 그려진 '모매꽃'에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서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에 안타까움의 정서를 담는다.

3. ㉠과 ㉡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추위와 어둠이 지속되는 상황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은 화자의 행위에 담긴 의미에 주의를 환기하며 시상을 연다.
- ② ㉠은 화자가 고립을 피해 바깥 세계와 교섭하는 시간이고, ㉡은 화자가 현실과의 단절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③ ㉠은 줄표를 통해 흐르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은 침포를 통해 정체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후회를 강조한다.
- ④ ㉠은 과거를 추억하는 화자의 정서를 응집한 시구이고, ㉡은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부각하는 시어이다.
- ⑤ ㉠은 상반된 시간 표지의 병치로 현실의 모순을, ㉡은 단일한 시간 표지를 통해 세월의 무상감을 부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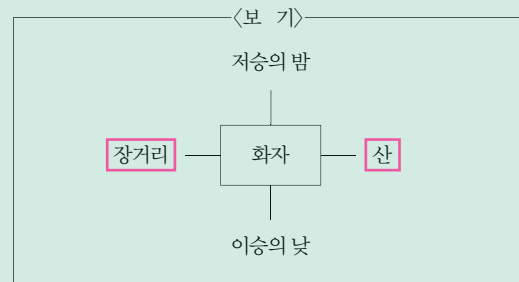
20.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을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부터 본질을 잃지 않는 불변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군.
- ②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여기는군.
- ③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 줌으로써 죽음 이후에도 함께할 대상으로 여기는군.
- ④ '산'을 근원적 고향으로 인식함으로써 그리움의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 ⑤ '산'을 현재 함께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로 인식하는군.

4.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대상의 변함없는 속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목해 보니, 시인은 자연을 시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숭고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 ② ㉡에서 대상을 본받으려는 태도에 주목해 보니, 시인은 자연을 인간 삶의 바람직한 가치와 의미를 제시해 주는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 ③ ㉢에서 돌아가 영면할 공간으로 대상을 표현한 것에 주목해 보니, 시인은 자연과의 합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 ④ ㉣에서 상상되는 대상의 장엄한 모습을 떠올려 보니, 시인은 삶과 죽음을 포용하는 자연에서 숭고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 ⑤ ㉤에서 대상의 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태도에 주목해 보니, 시인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자연을 지향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20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시적 공간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북창'은 세속의 세계를 등진 화자가 탈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의 기능을 지닌다.
- ② [A]에서 '장거리'와 '산'의 공간적 대비는 그 공간이 지닌 가변성과 불변성의 차이로 인해 성립된다.
- ③ [B]에서 '산'의 가치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심성이나 도덕과 일치한다.
- ④ [C]에서 '이승'과 '저승', '낮'과 '밤'을 서로 이어 주는 '산'의 모습은 죽어서조차 '산'에 머물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암시한다.
- ⑤ [D]의 '내음새'와 [E]의 '산정기'가 지닌 감각적 심상은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의 차이를 무화시킨다.

현대소설 (비연계)

문학

• 윤홍길의 작품 ‘매우 잘생긴 우산 하나’와 간쓸개에서 다룬 윤홍길의 ‘완장’에서의 소시민의 태도와 당대의 세태를 묻는 주제 의식 측면이 <보기>의 내용과 일부 일치함.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간쓸개 시즌6-9차

2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 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① 김달체가 각계각층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은, 권력이 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는 점에서 김달체가 권력관계를 의식하는 인물임을 드러내는군.
- ② 김달체가 준 술값을 포장마차집 주인이 받지 않으려는 것은, 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권력이 인물 간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는 요인임을 보여 주는군.
- ③ 김달체가 외양에 변화를 준 것은, 타인의 승인을 용이하게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허구적 권력 표지를 이용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김달체의 의도를 나타내는군.
- ④ 김달체가 사복들에게 목청을 높이며 항의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용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승인받은 경험들을 통해 얻게 된 김달체의 자신감을 보여 주는군.
- ⑤ 김달체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학생들과 맺은 유대 관계를 단절하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 상황 논리를 따르는 김달체의 타산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완장’의 주인공은 저수지 감시원 역할을 드러낼 뿐인 ‘완장’을, 타인 위에 군림할 수 있는 힘의 표시로 여긴다. 그러다 그는 ‘완장’의 의미를 확장하여, 사람들이 선택하는 모든 것이 ‘완장’이라 여기게 된다. 주인공의 이러한 이해는 세계를 오로지 경쟁 관계로만 본다는 점에서 왜곡된 것이지만, 세계의 불합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진실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작가는 주인공이 ‘완장’을 매개로 세계를 해석하는 모습을 통해, 권력 획득의 욕망이 절대화된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시민들이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불평등을 내면화한 채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리하고자 하는 당대의 세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선을 내비치고 있다.

- ① ‘팔에다 차는 것만이 완장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이다.’라는 서술은, 주인공이 ‘완장’의 의미를 예전보다 확장하여 이해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군.
- ② 준환이 아들의 손에 쥐여 주고 싶다는 ‘붓대’를 ‘완장의 하나’라고 종술이 인식하는 것에서, 교육을 남들보다 우월한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생각을 엿볼 수 있군.
- ③ 세상에는 ‘수많은 완장’이 존재하기에 ‘권력 한 가지가 다는 아니’라는 종술의 생각은, 권력 획득의 욕망이 절대화된 정치 현실에 대한 주인공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④ ‘많은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 ‘땅’ 역시 일종의 ‘완장’이라는 서술은, 불합리한 현실의 문제가 ‘완장’에 투영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군.
- ⑤ ‘남들을 큰소리로 부리’도록 하는 것은 ‘뭇든지 다 완장’이라는 종술의 생각에서,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서로 경쟁을 벌이기에 바쁜 당대의 세태를 짐작할 수 있군.

고전소설 (주목해야 할 작품 : C)

- ‘박태보전’을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으로 출제하였음.
- <보기>와 이감 모의고사 <보기>의 취지가 매우 유사함. 대립과 갈등의 양상 및 ‘박태보’의 성격적 형상화에 대한 내용을 공통으로 다루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5차

“저 달은 밝다마는 우리 주상은 불명하야 충신을 무슨 일로 천 리 원정에 내치시며, 무슨 일로 민 중전은 외관에 내치시고 군의신충 없었으니 이 부자자호 쓸데없다. 인심은 분명하건 마는 국운이 말세 되어 백성도 못할 일을 국가에서 행하고 한심하고 가련하다. 사백 년 사직을 뒤라서 불들다. 이 애야, 저 애야. 흥망성쇠는 불관하다마는 당상 부모 모셨어라. 심산 궁곡에 들어가 초목으로 붓을 적시고, 금수로 벼를 삼아 세월을 보내다가 성군을 기다리자.”

서로 비기며 애연히 가거늘 상이 그 노래를 들으시매 심산이 산란하여 그 아이들 성명을 묻고자 하시니 아이들이 달아나는 지라 못내 애연하시며 곧 환궁하시니라.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박태보전』은 숙종 대의 실존 인물 박태보의 삶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박태보는 임금의 부당함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에도 그는 가족과 국가에 윤리적 책무를 다하는 인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덕적 영웅으로 고양된다. 이때 다양한 서사 장치들은 사건의 입체적 전개에 기여한다.

- ① 하늘이 태보를 무죄로 판명하여 전고 충신을 따르게 함을 몽사로 드러내어, 태보가 윤리적 명분 면에서 인정받은 도덕적 영웅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국운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는 태보의 한탄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임금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만세 후에도 부자지정을 바라는 태보의 염원을 편지로 제시하여, 태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서조차 부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다하려 한 인물임을 보여 주는군.
- ④ 주상이 밝은 달의 속성과 대비되는 불명한 인물임을 노래를 통해 제시하여, 백성들이 주상을 부도덕한 인물로 평가하여 신임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군.

상 왕,
“비망기에 담긴 뜻이 확실하거늘, 참소를 듣고 속은 것이라 일러서 나로 하여금 헛말 하는 것으로 만드니, 내가 임금을 염신여긴 것이 아니냐. 어서 자백하라.”

공이 대 왕,

“투기함이 있다 할 때 경솔한 의심인 경우가 적잖은 연고로, 궁중 일을 외인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혹 생각전대 후 이런 일이 있는데 전하께서 살피지 못하오신가 하나이다.”

- 작자 미상, 『박태보전』 -

* 비망기: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 증궁: 왕비를 높여 이르던 말.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소설과 회곡은 갈등을 형상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역사 소설로서, 왕에 의해 고초를 겪으면서도 직언을 그치지 않았던 실존 인물 박태보를 영웅의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충신의 끈은 지조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우화성을 띤 회곡으로서, 근대 국가의 통제 체계와 무관하게 살아온 순박한 인물들이 공적 기관에 속한 인물들과 갈등을 겪는 모습을 통해 개인을 경시하는 관료주의적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필력이 날렵하여 풍우 오는 듯하’다거나 ‘유혈이 낭자’한데도 ‘안색이 태연하’였다는 서술에서, 실존 인물인 박태보를 비범하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
- ② (가)에서 ‘이때가 기사년 사월 이십오 일 신시러라’라며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상세하게 밝힌 것은, 역사 소설로서의 사실적 성격을 부각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어.
- ③ (가)에서 ‘자백’을 강요하는 임금의 뜻에 따르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박태보의 모습에서 충신의 끈은 지조를, (나)에서 ‘착오’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다른 조직에 전가하는 관료들의 모습에서 관료주의적 사회에 대한 풍자를 엿볼 수 있어.

고전시가 (주목해야 할 작품 : AA)

문학

- 정훈의 '탄궁가'를 공통으로 출제하였고, 수록 지문이 거의 일치함.
- 가난상의 부각 양상 및 가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 공통으로 다루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4차
2022 이감ON 모의고사 10차
2022 간쓸개 시즌5-4차
2022 간쓸개 시즌6-1차, 9차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일(春日)이 지지(遲遲)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린(東隣)에 쟁기 얻고 서사(西舍)에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한아(寒餓)한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중략)

베를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 솔 시루 버려두니 붉은 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절 제사는 무엇으로 해 올리며
원근 친척 내빈왕객(來賓往客)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궁귀(窮鬼)를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후량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원노(怨怒)하여 이른 말이
어려서나 늙어서나 희로우락(喜怒哀樂)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유신하여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험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삼긴 이내 궁(窮)을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分)이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A]

- 정훈, 「탄궁가」 -

[07~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顏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봄날이 따뜻하여 빠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춡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베를 북도 쓸데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솔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너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가난 귀신 어이하여 여의려뇨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험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윌려나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B]

- 정훈, 「탄궁가(嘆窮歌)」 -

33. [A],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술에 후량'을 갖춘 화자는 의례를 통해 '궁귀'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 ② [B]에서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다래 네 다래' 열린 '면화'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화자는 '이내 궁'과의 관계를, [B]에서 화자는 '너희'와의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 ④ [A]에서 화자는 '옳도다'라는 응답으로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B]에서 화자는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꽤는 모'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에서 화자는 각각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만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웠어도 거기에 즐거움이 있으며, 의롭지 않다면 부귀도 뜰구름과 같다고 하였다. 이 말은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기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것으로, 자신의 처지를 하늘이 정한 분수로 받아들이는 사대부의 빈천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실제 생활에서 관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대부 작가가 쓴 (가)와 (나)에 나타난 가난에 대한 태도에서도 이러한 점을 떠올릴 수 있다.

- ⑤ (가)의 화자가 '빈천'과 '부귀'에 대해 '내 분대로 하리라'라고 다짐하는 것이나 (나)의 화자가 '빈천도 내 분이어니'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난을 하늘이 정해 준 분수로 인정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군.

22. (가)와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와 [A]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가)의 화자와 [A]의 화자는 모두 부정적인 상황을 회화화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와 [A]의 화자는 모두 갈등이 없는 화합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의 화자는 대상의 가치에 주목하는 태도를, [A]의 화자는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연민을, [A]의 화자는 상대방이 보이는 행태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09 [B]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② [B]는 현실에 대한 순응 의식을, <보기>는 현실에 대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은 파종할 벼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은 술과 시루가 녹은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잇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은 밭을 밟을 때 예정된 차레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존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은 먹을거리가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초월적 존재를 상징하여 처지에 대한 한탄을 드러낸다.
- ② ㉡: 역사적 인물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위안을 얻고 있다.
- ③ ㉢: 유사한 소재를 나열하여 난감한 상황을 부각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나),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는 곤궁함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이었기에, 사대부의 작품에서는 궁핍함을 수용하는 자세를 그린 경우가 적지 않다. 「탄궁가」는 평생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한탄했던 작가의 작품으로, 자신의 가난을 부각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유학의 가르침에 충실한 선비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포화옥기」는 무고하게 이십여 년의 유배 생활을 했던 작가가 유배 십 년 만에 조그만 집을 마련하여 기거하게 되었을 때 쓴 작품으로, 유배 생활의 괴로움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누추한 거처에서도 자족하려는 마음가짐을 나그네의 입을 빌려 드러내고 있다.

- ① (나):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은,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작가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나):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 하리’는, 가난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유학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군.

07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순환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색채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상반된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의 고민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사례와 견주어 화자의 궁핍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이상적 세계의 묘사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0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효를 나타내는 어휘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가난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고전시가 (비연계)

문학

• 위백규의 '농가'를 공통으로 출제하였으며, 주제 의식 측면에서 유사한 문항을 간쓸개에서 다루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간쓸개 시즌1-7차
2022 간쓸개 에센셜 02

(나)

서산에 돌을별 비추고 구름은 느지막이 내린다
비 온 뒤 묵은 풀이 뉘 밭이 우거졌던고
㉔ 두어라 차례 정한 일이니 매는 대로 매리라

<제1수>

면화는 세 다래 네 다래요 이른 벼의 패는 모가 곱난가
오뉴월이 언제 가고 칠월이 반이로다
아마도 하느님 너희 삼길 제 날 위하여 삼기셨다

[B]

<제7수>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채 찬다
새 밥 익을 때에 새 술을 걸러서라

㉔ 아마도 밥 들이고 잔 잠을 때에 흥에 겨워 하노라

<제8수>

- 위백규, 「농가」 -

34. <보기>를 참고할 때, ㉔~㉔의 문맥적 의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탄궁가」는 향촌 공동체에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사대부가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어려운 자신의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 낸 작품이다. 한편 「농가」는 곤궁한 향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한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을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㉔은 파종할 법씨를 쥐가 먹어 버린 상황을 제시해 가난한 향촌 사대부의 곤혹스러운 처지를 실감나게 그려 낸다.
- ② ㉔은 술과 시루가 녹는 상황을 제시해 끼니조차 있지 못하는 생활이 지속되는 향촌 사대부 가정의 궁핍함을 부각한다.
- ③ ㉔은 체면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해 취약한 경제적 기반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향촌 사대부의 죄책감을 드러낸다.
- ④ ㉔은 밭을 맬 때 예정된 차례에 따라야 함을 나타내어 사회적 약속에 대한 준중을 향촌 공동체 발전의 방도로 여기는 관점을 드러낸다.
- ⑤ ㉔은 먹을거리에 부족함이 없이 즐거운 향촌 구성원의 모습을 통해 가난을 벗어난 이상화된 농촌상의 일면을 보여 준다.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려 내자" 돌려 내자 긴 이랑 돌려 내자
바라기" 역고"를 골골마다 돌려 내자
쉬" 절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돌려 내자

<제3수>

맑은 들은 대로 들고 별은 쉼 대로 쉼다
청풍(淸風)에 옷깃 열고 긴파람 홀리 볼 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가

<제4수>

행기"에 보리밥이오 사발에 콩일채"라
내 밥 많을세라 내 반찬 적을세라
먹은 뒤 한숨 잠이야 네오 내오 다들쓰나

<제5수>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 지거든 돌아가자
계변(溪邊)에 손발 씻고 호미 매고 돌아올 때
어디서 우배 초적(牛背草苗)"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가

<제6수>

- 위백규, 「농가(農歌)」 -

1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농가」는 이른 아침에 들에 나아가 김을 매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농번기 농촌의 하루 일과를 노래한 것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노동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노동의 즐거움을 부각시켜 타인의 동참을 유도하고, 노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보여 준다. 이처럼 이 작품은 공동 노동의 즐거움을 드러내고 조화로운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어 전원생활을 다룬 다른 사대부들의 연시조와는 차이가 난다.

- ① <제3수>에서 청유형 어미를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공동으로 농사일을 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② <제4수>의 초장에서 힘든 노동을 묘사한 것은 농촌이 직면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알려 주기 위해서이다.
- ③ <제4수>의 종장에서 '손님네'를 설정한 것은 농사일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인 시선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④ <제5수>의 초장에서 소박한 음식 차림을 제시한 것은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노동의 현장에서 먹을 때 그 전가가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⑤ <제5수>의 종장과 종장에서 공동 노동에 참여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은 조화로운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17세기 우리 음식 소개

화법

발표

- 발표 형식에서 청중과 상황을 분석하여 세운 발표 전략에 대해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었음.
- 발표 혹은 강연 형식에서 청중이 보인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1차

36. 다음은 발표자가 위 발표를 준비하면서 작성한 메모이다.
㉠~㉣을 바탕으로 하여 발표에서 사용한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황 분석>

-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보 전달 목적의 발표임.....㉠
- 발표 장소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교실임.....㉡
- 청중이 『음식디미방』이라는 책을 잘 알지 못할 것임.....㉢
- 청중이 음식 이름에 익숙하지 않을 것임.....㉣

<실행 계획>

- 청중의 반응을 고려하여, 발표할 내용의 순서나 분량을 조정할 수 있음.....㉤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보기>에 드러난 학생들의 듣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학생 1: 석류탕과 난면을 조리할 때 모두 꿩고기를 재료로 사용하는 걸 보니 당시에는 꿩고기가 구하기 쉬웠나 봐.
- 학생 2: 석류탕에서 만두 만드는 방법이 내가 아는 만두 만드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네.
- 학생 3: 석류탕이 어육류에 속하는 걸 보니 고기를 핵심적인 재료로 간주해서 분류한 것 같아.

- ① 학생 1은 학생 2와 달리 발표에서 음식 재료를 설명한 내용이 정확한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② 학생 2는 학생 1과 달리 자신이 알고 있는 조리법과 비교하며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다.
- ③ 학생 2는 학생 3과 달리 발표자가 두 번째로 소개한 음식의 조리법에 대한 발표 내용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며 들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며 들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점검하며 들었다.

36. 다음은 발표를 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와 발표 계획이다. 발표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메모	발표 계획
① 청중은 오래된 유물이나 유적만을 문화재로 생각할 것임. → 청중은 중요한 문화재를 국보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	근현대 문화재가 주된 대상인 국가 등록 문화재 제도의 소개가 발표의 목적임을 밝혀야지. → 지정 문화재 제도의 한계가 국가 등록 문화재 제도를 만들게 된 배경이라는 점을 설명해야지.

37. <보기>는 위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 학생 1: 문화재 소유자가 문화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로웠어. 그런데 문화재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 문화재로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 학생 2: 낡아서 허물려던 근대 건축물을 국가 등록 문화재로 등록한 뒤 내부 수리를 통해 계속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 우리 시의 근대 건축물들도 문화재 등록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 학생 3: 할아버지가 타셨던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가 국가 등록 문화재라니 정말 신기해. 우리가 지금 자연스레 쓰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미래에 문화재로 등록될 수 있을까?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② '학생 2'는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을 떠올리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모두, 발표자의 당부에 대해 앞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내 토론 한마당 예선 방식 개선

화법-작문

건의문
대화

-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글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음.
- 건의문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과 유사하게 건의문에 반영된 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음.
- 대화에서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1차

38. (가)의 작문 맥락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를 예상 독자로 설정했다.
- ②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글의 주제로 삼았다.
- ③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성찰하는 것을 작문 목적으로 설정했다.
- ④ 공동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기록하기 위해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작문 매체를 선택했다.
- ⑤ 공동체의 문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형식을 갖춘 글의 유형을 선택했다.

39. <보기>를 기준으로 하여 (가)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a 해결해야 할 현재의 문제를 제시했는가?
- b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했는가?
- c 문제의 원인을 제시했는가?
- d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제시했는가?
- e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는가?

- ① 2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참가 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문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을 충족하는군.
- ② 3문단에서 토론 한마당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내용은, 학생들의 불만이 높다는 문제를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 ③ 3문단에서 현행 예선 방식의 한계를 언급한 내용은, 참가자 제한을 학생들이 불만족한 원인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 ④ 4문단에서 인근 학교의 사례를 언급한 내용은, 유사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통해 기간 연장 및 평가 방법 변경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 ⑤ 5문단에서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 개선이 가져올 결과를 언급한 내용은, 문제 해결을 통한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를 충족하는군.

41. 작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문 목적 면에서, (가)는 예상 독자에게 필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예상 독자 면에서, (가)는 내용을 압축한 표제를 제시하여 예상 독자가 핵심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③ 작문 매체 면에서, (다)는 문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 줄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 ④ 글의 유형 면에서, (다)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형식의 글이다.
- ⑤ 글의 주제 면에서, (가)와 (다)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40. (가)와 (나)의 내용이 (다)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학생 3'이 찬반량 증가가 학생들 사이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된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이 (다)의 1문단에 건의를 하게 된 이유로 제시되었다.
- ② (가)에서 급식 잔반의 수치를 대해 다룬 내용이 (다)의 2문단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학교 주최 캠페인의 효과에 대해 다룬 내용이 (다)의 2문단에 건의 수용의 필요성으로 제시되었다.
- ④ (나)에서 '학생 1'이 친구에게 들은 사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의 3문단에 건의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 ⑤ (나)에서 '학생 2'가 자율 배식으로 변경했을 때의 예상 결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다)의 3문단에 건의 수용의 기대 효과로 제시되었다.

41. ㉠, ㉡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일부를 긍정하면서 추가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낸다.
- ② ㉠은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그 의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
- ③ ㉠은 ㉠ 직전의 '학생 2'가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한다.
- ④ ㉡은 ㉡ 직전의 '학생 3'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덧붙이면서 공감을 드러낸다.
- ⑤ ㉡은 ㉡ 직전의 '학생 3'이 말한 내용에 담긴 의견의 핵심을 재진술하면서 그 의견에 대해 동의를 유보한다.

38.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고 있다.
- ② ㉡: 문제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설문 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답하고 있다.
- ③ ㉢: 상대의 발언 내용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⑤ ㉤: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악기 연주자가 겪는 근골격계 질환

작문

기사문

-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고쳐 쓰기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초고를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되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9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10차

44. 다음은 초고를 쓴 기자가 잡지 편집장에게 보낸 이메일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고에 대한 검토 의견 중 (㉠) 요청에 따라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직업성 질환 중 하나인 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신경, 뼈와 주변 조직 등 근골격계에 발생하는 손상 또는 통증을 말한다. 주로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으로 근골격계에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난다. 악기 연주자들도 연주를 할 때 유사한 동작을 오래 반복하다 보니 주로 사용하는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다.

- ① 직업성 질환이 아닌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이유 추가
- ② 직업성 질환이 아닌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조건 추가
- ③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부위 추가
- ④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유형 추가
- ⑤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 추가

45.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을 활용하여, 악기군별 상지 부위의 유병률 차이에 대해, 전반 악기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악기, 관악기 순이라는 내용으로 2문단을 구체화한다.
- ② ㄱ을 활용하여, 악기군에 따른 부위별 유병률 순위에 대해, 상지 부위와 달리 하지 부위의 유병률은 전체 부위 유병률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2문단을 보강한다.
- ③ ㄴ-1을 활용하여, 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구체화한다.
- ④ ㄴ-2를 활용하여, 연습 중 휴식이 악기군별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악기의 경우가 현악기보다 유병률을 낮추는 데 휴식의 영향이 더 크다는 내용으로 3문단을 구체화한다.
- ⑤ ㄷ을 활용하여,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 대해, 근골격계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그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3문단을 보강한다.

45. 다음은 (나)를 쓴 학생이 학교 신문 편집부에게 보낸 이메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내 주신 검토 의견 중 (㉡)해 달라는 조언에 따라 마지막 문단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졸업식은 학교생활을 무사히 마친 학생들을 축하하는 자리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학급별 졸업식으로 전환하여 모든 학생들이 졸업식의 주인공이 되어 축하받고, 선생님,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① 졸업식의 의의는 삭제하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의 필요성은 추가
- ② 졸업식의 의의는 삭제하고, 학급별 졸업식으로서의 전환의 필요성은 추가
- ③ 졸업식 뒤풀이 문화의 개선 필요성은 삭제하고, 학급별 졸업식의 개선 방안은 추가
- ④ 졸업식 뒤풀이 문화의 개선 필요성은 삭제하고,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의 필요성은 추가
- ⑤ 졸업식 뒤풀이 문화의 개선 필요성은 삭제하고, 학급별 졸업식으로서의 전환의 필요성은 추가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ㄱ을 활용하여, 내정 상태 회로와 기억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3문단의 내용에 내정 상태 회로가 뇌에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을 추가한다.
- ② ㄴ-1을 활용하여, 휴지 상태에서 뇌의 특정 영역들이 더욱 활성화된다는 1문단의 내용에 이 영역들은 인지 활동 상태에서는 활성화 정도가 낮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ㄴ-2를 활용하여, 휴지 상태의 뇌가 내부에 축적된 정보를 중점적으로 처리한다는 4문단의 내용에 내정 상태 회로가 활성화 되면 외부 정보의 수용이 멈춘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ㄴ-2를 활용하여, 내정 상태 회로가 자아 성찰을 돕는다는 4문단의 내용에 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추가한다.
- ⑤ ㄷ을 활용하여, 내정 상태 회로의 이상을 언급하는 5문단의 내용에 내정 상태 회로의 활성화 정도가 낮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증상과 어려움을 추가한다.

국어사-형태론

언어

- 중세 국어의 명사 파생 접사 '-의'와 부사 파생 접사 '-이'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를 언어 200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6차 2022 언어 200제

중세 국어에서도 명사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의'가 존재하였다. 가령, 현대 국어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기리(길-+이)'의 '-이'는 형용사 어간에 붙어 명사도 만들고 부사도 만들었다. 또한 '-이'는 '사리(살-+이)'처럼 동사 어간에 붙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하는 사람', '...하는 데 쓰이는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중세 국어에서 명사 파생 접사 '-이'처럼 용언 어간에 붙는 명사 파생 접사 '-의'도 쓰였는데, 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또한 접사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쓰였는데, 접사 '-이'는 중세 국어에서 '이' 모음이 양성 모음도 아니고 음성 모음도 아니어서 모음 조화와는 무관하게 결합하였다.

- 너비(넙-+이)도 2티 하고 [넙이도 같이 하고]
- 노퍽(눌-+이) 다섯 자허러라 [높이가 다섯 자였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는 '의'가 앞 체언에 붙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로 쓰이기도 했다. 관형격 조사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쓰였고, 부사격 조사는 서술어와 호응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에서 쓰였다. 그런데 이들 '의'도 모음 조화에 따라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의'로 쓰였다.

- 버의(범+의) 뻐나 [범의 뻐나]
- 사르미(사람+의) 무레 [사람의 무리에]
- 무퇴(물+의) 돈니논 [물에 다니는]
- 바미(밤+의) 나디 아니호느니 [밤에 나가지 아니하니]

37.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중세 국어에서는 명사 파생 접사로 '-의/의'가, 부사 파생 접사로 '-이'가 쓰였다. 명사 파생 접사 '-의/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하였다.

- 虛空 (㉠) 언맨 둘 [허공의 넓이가 얼마인 줄]
- 좁이 (㉡) 아득하니 [향이 깊이 아득하니]
- (㉢) 八萬四千里러라 [높이가 팔만 사천 리더라]
- 늘근 사르미 (㉣) 슬혀서 [높은 사람이 길이 슬며려]

	㉠	㉡	㉢	㉣
①	너비	기피	노퍽	기리
②	너비	기피	노퍽	기리
③	너비	기피	노퍽	기리
④	너비	기피	노퍽	기리
⑤	너비	기피	노퍽	기리

152 <보기 1>의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는 앞 체언이 존재의 대상이 아닌 유정 명사일 때 쓰였다.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스'은 앞 체언이 부정 명사, 또는 존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때 쓰였다.
-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이'는 '나, 너, 저, 누'를 비롯한 몇몇 특정한 체언 뒤에 붙었다.
- 관형격 조사 '의, 의, 스'이 관형절이나 명사절의 주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다.
- 관형격 조사 '스'이 동사나 형용사의 종결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책꽂이’에서 ‘-이’는 ‘...하는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이다.
- ② 현대 국어 ‘놀이’에서의 ‘-이’는 중세 국어 ‘사리’에서의 ‘-이’와 달리 ‘...하는 사람’의 의미로 쓰인다.
- ③ 현대 국어 ‘길이’처럼 중세 국어 ‘기리’도 명사와 부사로 쓰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 접사 ‘-이’가 붙어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체언에 조사 ‘의’가 붙은 말은 관형어나 부사어로 쓰였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중세 국어 자료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王스 거퇴 안갸다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가]
- ㉡ 曲江스 구빅에 ㅁ마니 돈노라
[곡강의 굽이에 가만히 다니노라]
- ㉢ 光明이 불기 비취어 [광명이 밝히 비치어]
- ㉣ 글지시에 위두호고 [글짓기에 으뜸이고]
- ㉤ 쓰릭 일후른 [딸의 이름은]

- ① ㉠에서 ‘거퇴’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격 조사 이군.
- ② ㉡에서 ‘구빅’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③ ㉢에서 ‘불기’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부사 파생 접사이군.
- ④ ㉣에서 ‘글지시’의 ‘-이’는 모음 조화와 무관하게 결합한 명사 파생 접사이군.
- ⑤ ㉤에서 ‘쓰릭’의 ‘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합한 관형격 조사 이군.

- ① ㉠의 ‘尊히시닷’에서, 관형격 조사 ‘스’이 형용사의 종결 어미와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부텃’과 ㉢의 ‘네’에서, 관형격 조사 ‘스’과 ‘의’가 명사질의 주어와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쁘텃’과 ㉣의 ‘하늬’에서, 관형격 조사 ‘스’이 부정 명사와 결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네’와 ㉤의 ‘쇠’에서, 체언 ‘나’와 ‘쇼’가 관형격 조사 ‘이’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ㅁ릭’과 ‘겨지’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1-2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3차 2022 언어 200제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두 사람이 공원에서 만난 상황)

민수: 영이야, ㉠ 우리 둘이 뭐 하고 놀까? 이 강아지랑 놀까?

영이: (민수 품에 안겨 있는 강아지를 가리키며) 아, 애?

민수: 응, 애가 전에 말했던 봄이야. 봄이 동생 숨이는 집에 있고.

영이: 봄이랑 뭐 하고 놀까? 우리 강아지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해서 ㉡ 우리 둘은 실뭉치를 자주 가지고 놀아. 너네 강아지들도 그래?

민수: 실뭉치는 ㉢ 둘 다 안 좋아해. 그런데 공은 좋아해서 ㉣ 우리 셋은 공을 갖고 자주 놀아. 그래서 공을 챙겨 오긴 했어.

영이: 그렇구나. 별이는 실뭉치를 좋아하니까, 다음에 내가 혼자 나오고 내가 봄이랑 나오면 그때 ㉤ 우리 셋은 실뭉치를 갖고 놀면 되겠다.

민수: 그러자. 그럼 오늘 ㉥ 우리 셋은 공을 가지고 놀자.

-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②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③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된다**.
 ④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⑤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효주: 서준아, ㉠ 우리 같이 등산하는 거 정말 오랜만이다.

서준: 그러게, ㉡ 너 바쁘다고 해서 못 올 줄 알았는데.

효주: 동생들 숙제 도와주려 했는데 ㉢ 저희끼리 할 수 있대.

서준: 잘됐다. 어, 저기 ㉣ 저분은 선생님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 여기에서 다 뵈네요.

선생님: 어, 오랜만이구나. ㉠ 너희도 등산 온 거니? 선생님도 ㉡ 이곳이 유명하다기에 가족들과 함께 와 봤지.

효주: 네, ㉢ 저희도 이제 막 왔어요. 아버지께서 ㉣ 당신의 건강은 다 등산 덕분이라고 하셔서요.

선생님: 잘 생각했구나. 건강이 중요하지. 그럼 ㉠ 우리 먼저 가 볼 테니 나중에 학교에서 보자.

- ① ㉠은 듣는 이를 **포함하는** 대명사이고, ㉡는 듣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 대명사이다.
 ② ㉢와 ㉣는 말하는 이가 높여야 할 대상에는 사용할 수 없는 2인칭 대명사이다.
 ③ ㉢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를 제외한 제3의 인물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는 말하는 이를 **포함하는** 대명사이다.
 ④ ㉠와 ㉡는 각각 주어진 '선생님'과 '아버지'를 피용하여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3인칭 대명사이다.
 ⑤ ㉢와 ㉤는 모두 처소 지시 대명사로, 두 대명사가 가리키는 장소는 **동일하다**.

37.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3인칭 대명사 중에 앞서 나온 체언을 도로 가리키는 대명사를 재귀 대명사라 부른다. 그런데 재귀 대명사와 같은 형태가 [자료]

A: ㉠ 저는 이제 가 볼게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키워 볼게요.

B: ㉡ 당신처럼 ㉢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키워 준다면 내가 고맙지. 아버님께서 생전에 좋아하시던 화분이예요. 저 화분도 ㉣ 당신께서 심으셨지요.

A: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 아들이 올 거예요. 제가 오려고 했는데, 굳이 ㉤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 전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네요.

통사론

언어

• 서술어의 자릿수를 파악하고 서술어에 따른 필수 성분을 파악하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2차
2022 이감ON 모의고사 8차

38.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보 기>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유리하다.

- ① 그 광물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 ②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 ③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 ④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절었다.
- ⑤ 나는 구호품을 수해 지역에 보냈다.

38. <보기>의 ㉠과 ㉡에 해당하는 예끼리 묶인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부사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학 생 : ㉠의 서술어는 두 자리 서술어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이고, ㉡의 서술어는 세 자리 서술어로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군요.

- ① ㉠: 종이가 누렇게 바랬다.
㉡: 그녀는 얼른 지하실에 숨었다.
- ② ㉠: 이미 그 일에서 마음이 떠났다.
㉡: 그는 계획을 곧 실행에 옮겼다.
- ③ ㉠: 큰아버지는 아버지와 많이 닮았다.
㉡: 우리는 그 도움으로 일을 해결했다.
- ④ ㉠: 아이들은 다른 일에 정신을 팔았다.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 ⑤ ㉠: 직원들은 회사에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 수술 후 어머니는 조금씩 음식을 취했다.

35. 밑줄을 바탕으로 다음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산신으로 불렀다.
- ㉡ 추운 바람 때문에 방이 점점 식어 간다.

- ① ㉠은 '친구는 매사에 적극적이다.'와 달리, 부사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군.
- ② ㉡은 '그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다.'와 마찬가지로,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쓰이고 있군.
- ③ ㉢은 '어부는 물고기를 잡았다.'와 달리,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여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군.
- ④ ㉣의 '불렀다'는 '그는 친구를 크게 불렀다.'의 '불렀다'와 달리, 주어 이외에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는군.
- ⑤ ㉣의 '식어 간다'는 '자고 있다'와 마찬가지로, 서술어 자리에 두 개의 용언이 쓰였지만 하나의 서술어로 기능하는군.

한글 맞춤법

언어

• 한글 맞춤법의 준말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내용을 묻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
서 공통적으로 다루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4-5차
2022 이감ON 모의고사 8차
2022 언어 200제

39. <보기>는 준말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이를 적용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제34항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5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려 ‘ㅏ/ㅑ, ㅓ/ㅕ’으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제35항 (붙임 2) ‘ㄴ’ 뒤에 ‘-어, -었-’이 어울려 ‘ㄴ, ㄷ’으로
될 적에도 준 대로 적는다. ㉢

제36항 ‘ㄷ’ 뒤에 ‘-어’가 와서 ‘ㅌ’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제37항 ‘ㅏ, ㅑ, ㅓ, ㅕ, ㅗ, ㅛ’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ㅕ, ㅖ, ㅗ, ㅛ, ㅜ, ㅠ’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 ① ㉠을 적용하면 ‘(날이) 개었다’와 ‘(나무를) 베어’는 각각 ‘꺾다’와
‘베’로 적을 수 있다.
- ② ㉡을 적용하면 ‘(다리를) 꼬아’와 ‘(죽을) 쑤었다’는 각각 ‘꽂다’와
‘쪄다’로 적을 수 있다.
- ③ ㉢을 적용할 때, 어간 ‘(발로) 차-’에 ‘-이-’가 붙은 ‘(발에)
차이-’에 ‘-었다’가 붙으면 ‘채었다’로 적을 수 있다.
- ④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벌이) 쪼-’에 ‘-이-’가
붙은 ‘(벌에) 쪼이-’에 ‘-어’가 붙으면 ‘쪼어’로 적을 수 있다.
- ⑤ ㉤을 적용한 후 ㉢을 적용할 때, 어간 ‘(오줌을) 누-’에 ‘-이-’가
붙은 ‘(오줌을) 누이-’에 ‘-어’가 붙으면 ‘뉘어’로 적을 수 있다.

37. <보기>의 ‘한글 맞춤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38항 ‘ㅏ, ㅑ, ㅓ, ㅕ, ㅗ, ㅛ’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질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쓰이어 → 썩어/쓰여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제38항에 따르면, ‘눈치가 보이어’는 ‘눈치가 보여’로 적을 수
있다.
- ② 제38항에 따르면, ‘아기를 누이어’는 ‘아기를 뉘어’로 적을 수
있다.
- ③ 제38항에 따르면, ‘웅덩이가 파이어’는 ‘웅덩이가 패어’로 적을
수 있다.
- ④ 제39항에 따르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마음이 편찮다’로
적을 수 있다.
- ⑤ 제39항에 따르면, ‘그다지 달갑지 않은’은 ‘그다지 달갑잖은’
으로 적을 수 있다.

39. <보기>의 ‘한글 맞춤법 제34항’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34항 모음 ‘ㅏ, ㅑ’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가아 → 가

(붙임 1) ‘ㄱ, ㅋ’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매어 → 매 [해설]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

- ① ‘언니가 등불을 켜었다’에서 ‘켜었다’는 항상 ‘꺾다’로 적어야
했군.
- ② ‘병이 다 나아서 다행이다’에서 ‘나아서’는 항상 ‘나서’로 적어
야했군.
- ③ ‘지금 길을 건너어도 좋겠습니다’에서 ‘건너어도’는 항상 ‘건너
도’로 적어야했군.
- ④ ‘개수를 다시 세어 보도록 하세요’에서 ‘세어’는 ‘세어’나 ‘세’로
모두 적을 수 있겠군.
- ⑤ ‘그런 물건은 흔하여 가치가 없다’에서 ‘흔하여’는 반드시
‘흔해’로 적지 않아도 되겠군.

사전 등록제 미디어 비평 화법

매체

-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음.
-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에 대해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5-2차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6-5차

40. 위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가 △△신문의 내용보다 □□신문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방송에서 어떤 기사에 더 비중을 두었는지 드러내고 있군.
- ② 시의성 있는 화제를 다룬 신문 기사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군.
- ③ △△신문 기사의 일부를 화면에 확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특정 부분을 방송에서 선별하여 보여 주고 있군.
- ④ 진행자가 △△신문과 ○○신문의 기사 내용을 종합함으로써 특정 화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군.
- ⑤ 전문가가 진행자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군.

42. 다음은 위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게시판'의 내용이다. 시청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청자 게시판	
↳ 시청자 1	제 주변에서는 많이 등록했는데요. 신문에 나온 등록물 현황은 어디에서 조사한 것인가요?
↳ 시청자 2	방송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의 필요성 위주로 이야기하고 개인 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네요.
↳ 시청자 3	미취학 아동만 대상자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도 해당되는군요. 누가 대상자인지 궁금했던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겠어요.
↳ 시청자 4	가족 중에 대상자가 있지만 저처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사람에게는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시청자 5	인터넷에서는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실종자를 찾기까지 81시간이 걸리던데요.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① 시청자 1과 2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등록률에 대한 정보의 출처가 믿을 만한지 점검하였다.
- ② 시청자 1과 4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을 사전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의 양이 충분한지 점검하였다.
- ③ 시청자 2와 5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장단점을 공평하게 다루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④ 시청자 3과 4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가 어떤 사람에게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 ⑤ 시청자 3과 5는 ○○신문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지문 등 사전등록제의 효과에 대한 정보가 사실인지 점검하였다.

4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보 제공의 주제	• (가)는 기자와 앵커가 정보를 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①
정보의 성격	• (가)는 다음 날 발생할 개기 월식의 관측 정보를 알려 주고 있다는 점에서, <u>시의성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u>을 알 수 있다. ② • (나)는 직접 촬영한 개기 월식에 대한 감상을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정서 공유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정보의 양과 질	• (가)는 (나)와 달리 개기 월식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뢰도를 보다 높이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 (나)는 개기 월식을 촬영한 동영상상을 여러 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에 비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0. (가), (나)를 수용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작성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② (나)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신뢰할 만한 정보인지 확인해야 한다.
- ③ (나)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으므로 양쪽 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④ (가)와 (나)는 대상의 장점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의 단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 ⑤ (가)와 (나)는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론에 대한 왜곡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생 종이

매체

• 스토리보드의 생산 계획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출제되었음.



2022 대학수학능력시험

2022 이감 모의고사 시즌4-5차

(나)

	화면 설명	화면	내레이션 및 배경 음악
#1	그림이 먼저 나오고 글이 나중에 덧붙여짐.		재생 종이는 폐지를 활용해 만든 종이입니다. 여기서 폐지는 한번 사용한 종이를 말해요. (배경 음악) 잔잔한 느낌의 음악
#2	잘린 나무 밑둥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옆에 나무 그림이 나타남.		종이를 만들기 위해 숲이 사라져요. 하지만 복사지의 10%만 재생 종이로 바뀌면 1년에 27만 그루의 나무를 지킬 수 있어요. (배경 음악) 무거운 느낌에서 경쾌한 느낌의 음악으로 바뀜.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이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가 보강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종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 외에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도 조사하여 추가해야지.
- ② 정보가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의 정의를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를 결합한 화면으로 표현하면서 내레이션으로 보완해야지.
- ③ 정보 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나도록 (가)에서 두 문단으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의 필요성을 배경 음악과 내레이션을 모두 포함한 각각의 화면 두 개로 구성해야지.
- ④ 정보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도록 (가)에서 제시한 일반 종이와 재생 종이의 생산으로 발생하는 물질의 양적 차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포함해야지.
- ⑤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가)에서 제시한 재생 종이 사용에 따른 나무 보존에 대한 내용을 화면과 내레이션으로 표현하면서 이에 어울리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나타내야지.

(나)

	장소	장면 설명	효과
#1	학교 앞 횡단보도 시작 지점	정면이 아닌, 약간 아래쪽을 향해 있는 화면. 중앙에는 밝게 켜진 스마트폰 화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일부 영역만 밝고 그 외의 다른 영역은 어두움. 상단에 자막.	[자막]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문화 정착 캠페인 “횡단보도에서”
#2	학교 앞 횡단보도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 어두운 영역에서 희미하게 자동차가 보이지만 밝은 영역에서는 아직 볼 수 없음.	[효과음] 매우 작게 들리는 자동차 소리와 경적 소리.

44. ㉠~㉣을 바탕으로 ‘은서’가 세운 영상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언급된 주제는 영상이 시작되는 #1에 자막으로 제시하여 알려 주어야겠군.
- ② ㉡에서 언급된 효과를 얻기 위해 카메라의 시야와 영상 속 보행자의 시야가 일치하도록 촬영해야겠군.
- ③ ㉢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는 시선을 따라 밝고 어두운 영역이 구분되도록 연출해야겠군.
- ④ ㉣에서 언급된 그래프의 내용은 #4에 오버랩되는 자막으로 삽입해야겠군.
- ⑤ ㉣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장면과 어울리도록 삽입하여 영상을 복합 양식적으로 나타내야겠군.